

2002년도 강원의 얼 선양을 위한 학술 대회

七峰書院과 原州의 精神文化 再照明

■ 일시 : 2002년 11월 15일(금) 13:30~16:40

■ 장소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운곡회관

주관 : 사 단 법 인 운 곡 학 회

후원 : 원주시 · 강원문화재단 · 강원일보 · 강원도민일보

2002년도 강원의 얼 선양을 위한 학술 대회

七峰書院과 原州의 精神文化 再照明

■ 일시 : 2002년 11월 15일(금) 13:30~16:40

■ 장소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운곡회관

주관 : 사 단 법 인 운 곡 학 회

후원 : 원주시 · 강원문화재단 · 강원일보 · 강원도민일보

목 차

개회사

강태연 (운곡학회 이사장)

축 사

김기열 (원주시장)

학술대회 진행일정

원주읍과 칠봉서원 복원	1
신경철 (상지영서대학 교수)	
韓百謙의 『東國地理誌』 成立背景과 性格	15
원유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恒齋 鄭宗榮과 草溪 鄭氏 關東派 門中에 관한 연구	29
오영교 (연세대학교 교수)	

開 會 辭

공사간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 후원을 해주신 원주시와 강원문화재단 그리고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윤곡학회는 창립초라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합니다.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은 정관 제3조에 “이 법인은 耘谷 元天錫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아울러 七峰書院에 配享되었던 觀瀾 元昊 恒齋 鄭宗榮 久菴 韓百謙 선생 등을 비롯한 원주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국내외에 널리 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理事진은 주로 도내 학계 유림 언론 사회 등 원로 인사 20명과 50여명의 회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는 조선 오백년간의 江原의 首府로서 역사적 소중한 문화유산을 많이 지니고 있는 고장입니다 특히 七峰書院은 精神文化의 要覽地로서 節義精神 清白吏精神 實學精神이 집결된 곳입니다 따라서 칠봉서원의 정신은 원주의 정신인 동시에 강원도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칠봉서원에 배향되었던 네분들을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서 이달의 “강원의 인물”로 선정하여 널리 선양하였고 그곳 사이트를 열면 언제든지 볼수있게 하였거니와 이 네분들에 대하여 그 간 수차에 걸쳐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발표가 있었고 많은 관심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앞으로 원주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도 연구대회를 열고자합니다

끝으로 본 대회는 “국가 발전은 정치 경제 발전과 국민정신이 함께 발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이에 부응하며, 원주의 정신은 물론 나아가 강원도의 정신을 정립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고, 특히 恒齋의 清白吏精神과 久菴의 實學精神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아갈 길을 밝히는 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1. 15.

(社) 耘谷學會 理事長 姜 泰 淵

祝 辭

2회째 맞는 운곡학회 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원주얼 연구에 애써오신 학회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는 외침과 국난속에서도 민족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굳건히 지키면서 독창적인 문화의 꽃을 찬란하게 피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서구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정신문화는 크게 훼손 되고 그 뿌리마저 흔들리게 되어 정체성까지 위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창조적 계승이 절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정신문화가 그에 걸맞는 깊이를 갖지 못한다면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2회 운곡학회 학술대회를 통하여 운곡선생의 절개와 구암선생의 수기치인 그리고 항재선생의 청렴결백 등을 비롯하여 잊혀져 가는 원주의 얼과 정신을 되찾고 계승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원주는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룰 때 참다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곡학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운곡학회의 활발한 활동과 발전을 기원하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1월 15일

원주시장 김 기 열

학술대회 진행일정

● 등록 및 안내 13:00~13:30

● 개회식 13:30~13:50

사회 : 양근열(운곡학회 부회장)

개회사 : 강태연(운곡학회 이사장)

축사 : 김기열(원주시장)

● 주제발표 13:50~15:30

원주열과 칠봉서원 복원

신경철(상지영서대학 교수)

韓百謙의 『東國地理誌』 成立背景과 性格

원유한(동국대학교 명예교수)

恒齋 鄭宗榮과 草溪 鄭氏 關東派 門中에 관한 연구

오영교(연세대학교 교수)

● 종합토론 15:40~16:40

사회 : 원영환(강원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 정영철(전 횡성군수)

방동인(전 관동대학교 교수)

원주의 얼과 칠봉서원 복원

申 景 澈(상지영서대 교수)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4. 윤곡학회와 원주 |
| 2. 원주와 원주의 표상 인물 | 5. 맺는 말 |
| 3. 칠봉서원 복원의 의의 | |

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마다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고장의 훌륭한 선조들의 정신과 삶에 관심을 가지며, 학술발표와 책자 발간, 선양 사업과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시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

강원도는 동·남·북으로 江陵과 原州와 春川 세 도시가 각기 지역적인 거점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 세 도시에서 각각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표정으로 삼은 학술단체가 설립되었다. 강릉의 윤곡학회와 춘천의 의암학회와 원주의 윤곡학회가 그것이다. 이 세 학회의 창립은 다른 市·道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이것은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세 도시의 據點性和 오랜 역사와 전통 등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학회 이름만 보아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윤곡학회는 원주 사람으로 원주에서 은거하고 묘소도 원주에 있는 고려말 조선초의 節義의 사표로 존경받고 있는 元天錫 선생의 호를 따다 쓴 것이다. 윤곡학회는 강릉 출신의 대학자 李珣 선생의 호를 따고, 의암학회는 춘천 출신으로 학자요 의병대장으로 활약한 柳麟錫 선생의 호를 사용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의 호를 각기 학회의 표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의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과 삶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기리고 보급하여 본받게 하고, 나아가 지역의 正體性を 확립하고 애郷심을 북돋우며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것으로 세 학회의 기본 입장은 서로 일치한다.

이처럼 강원도의 세 도시에서 세 학회가 활동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로, 해당 지역과 강원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세 학회는 앞으로 강원도의 얼을 탐구하고, 강원도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과 빛나는 삶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강원도의 발전에 삼발이 역할을 하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운곡학회의 활동은 원주 지역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원주의 얼을 확립하고 원주를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여기서는 운곡학회가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칠봉서원의 복원이 어떤 의의가 있으며, 왜 복원해야 하며,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원주와 원주의 표상 인물

나라의 발전은 국민의 정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민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올바른 국민정신은 훌륭한 선조들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원주의 얼을 찾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신으로 산 원주의 선조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원주는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다. 구석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¹⁾ 역사시대에는 原州는 馬韓과 百濟를 거쳐 고구려 때는 平原郡으로 동남방 지역의 거점이었다. 신라 시대에도 北原京으로 평안도·함경도의 남부에서 강원도와 경기도 동부 및 충청북도 북부를 관할하는 넓은 지역의 요새지였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原州郡이 되고, 뒤에 中原道·交州道 소속과 都護府와 牧과 府로 변경되면서 중부지방을 통괄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조선이 건국되어 태조 4년(1395) 6월 13일에는 원주에 觀察府가 설치되어 고종 33년(1896)에 감영이 춘천으로 이전될 때까지 500년 동안 원주는 강원도의 首府로서 모든 분야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것은 원주가 영서와 영동 지역을 연결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동부와 충청북도 북부를 포괄하는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한 것이다.

마한 : 원주는 마한 지역

백제 : 원주는 백제 지역

1) 최복규·최승엽, 「원주군의 선사유적 고분」,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원주군, 1994.

고구려 장수왕 57년 (469) : 平原郡 (동왕 63년에 竹嶺~南陽灣 점령)

신라 진흥왕 (540~575) : 漢江 지역 점령, 咸興 평야 진출

신문왕 5년 (685) : 北原京

문무왕 18년 (678) : 北原小京 (9州 5小京)

경덕왕 16년 (757) : 北原京

고려 건국 (918) : 고려 소속

태조 23년 (940) : 原州郡

성종 14년 (995) : 平涼, 平凉京, 中原道 소속 (10道 12牧 개편)

현종 9년 (1018) : 忠州牧 소속 (중원도→충주목 개편), 知州事

예종 때 : 交州道(현 강원도 영서지역) 소속, (5道 兩界로 개편)

원종 10년 (1269) : 靖原都護府 승격 (林惟茂 外鄕)

충렬왕 17년 (1291) : 益興都護府로 개명 (契丹哈丹兵 격퇴)

충렬왕 34년 (1308) : 原州牧 승격 <행정 중심지>

충선왕 2년 (1310) : 成安府 변경 (牧制 폐지)

공민왕 2년 (1353) : 原州牧 복등 (安胎于雉岳山)

공민왕 5년 (1356) : 交州道 改稱

우 왕 14년 (1388) : 交州江陵道 소속, 관찰사 파견

조선 건국 (1392)

태조 4년 (1395) : 江原도로 개편(강릉도와 교주도 합도), 監營 설치

중종 38년 (1543) : 江原道·原州牧

32년 (1895) : 忠州府 原州郡 (23府 337郡制 실시)

33년 (1896) : 江原道 原州郡, (13道 1牧 7府 331郡制 실시)

1910. 8. 29. : 原州郡 (13道 12牧 317郡 4,322面制 실시)

1910. 9. 1. : 本部面→ 原州面 (5개리) <지방관제 개정>

1937. 7. 1. : 原州面→ 原州郡 승격 (1읍 9면)

1955. 9. 1. : 原州市 승격 (원주읍, 판부면 단구리·행구리, 호저면 우산리)

原州郡→ 原城郡 개편 (9개면)

1989. 1. 1. : 原城郡→ 原州郡 개칭

1995. 1. 1. : 原州市·郡 통합→ 原州市

2002. 현재 : 原州市 (1읍 8면 18洞) <행정동은 19개>

이러한 오랜 역사와 지역적 역할에 따라 원주는 여러 면에서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가지게 되었다. 남한강과 육로를 통한 교통의 요지로서 고려 초기에 원주에 12조창의 하나로 興原倉을 두어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동부 경기도의 물산을 京倉과 연계하는 거점이 되었다. 정종 때는 200섬을 나르는 평저선이 21여척이나 배정되어 있었다.²⁾ 정신문화와 교육의 전당으로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원주향교도 조선조에 아주 이른 시기인 태종 2년(1402)

에 개축된 것도 원주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³⁾ 나라에서 봄·가을로 조과 祝文을 보내어 국가적 차원의 산신제가 600여년 동안 이어 내려오는 곳도 원주다.⁴⁾ 또한 통일신라 10대 사찰 등 1천년 古刹 14개를 비롯하여 절과 암자만도 120개가 넘고, 국보 3점에 많은 보물과 문화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⁵⁾ 이것은 원주 지역에 종교와 문화가 얼마나 크게 흥성하였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런 관계로 원주에는 훌륭한 선조들이 많이 살았다. 그분들의 삶을 살펴 집약시켜 보면 원주가 忠·節·孝·烈의 고장임을 알 수 있다.

忠義의 인물로는 고려 충렬왕 때 연전연승하는 哈丹 무리의 예봉을 원주에서 꺾어 격퇴 시킴으로써 國家 存亡의 위기를 건진 元沖甲⁶⁾ 장군을 비롯하여, 임진왜란 때 원주의 영원 산성에서 父子와 부인까지 함께 순절하여 忠·孝·烈 3節을 빛낸 金梯甲 원주목사와, 여주 신흥사의 승전으로 경기 동부지역을 장악하여 왜군의 경성 진입을 차단한 원주 출신 여주 목사 元豪 장군이 있다.

올바른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여 민족정신의 큰 줄기를 바르게 세운 節義의 선조도 많다. 고려 국자감 진사로 태종의 스승이면서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평생을 치악산에서 은거 저술하며 올곧게 산 韞谷 元天錫 선생, 젊은 학자로 촉망을 받았으나 권력에 집착하는 官界를 미리 떠나서 오로지 端宗을 섬기며 산 생육신 觀瀾 元昊 선생, 두 士禍의 격랑 속에서도 6조 판서와 4개 관찰사를 지내면서도 청백리로 뽑힌 恒齋 鄭宗榮 선생, 토지제도의 개선과 역사의 고증적 연구로 실학을 선구적으로 연 久菴 韓百謙 선생, 이들 모두가 원주의 선조들이다.

그 밖에도 훌륭한 인물들은 많다. 다만, 위에서는 원주의 忠烈祠⁷⁾와 七峯書院에 배향된

- 2) 김부식, 『高麗史』 권 79, 食貨 2 漕運, 아세아문화사, 1983.
신경철, 「원주에 가면 문화가 보인다」 '흥원창', 영서신문사, 1999.
- 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6 原州牧 祠廟조, 명문당, 1983.
원주향교, 「원주향교지」, 원주향교, 1995.
- 4) “禮曹… 本朝承前之制… 從之嶽海濱爲中祀 諸山川爲小祀… 江原道雉嶽山… 皆小祀” (태종실록 권 28 태종 14년 8월조)
“壬戌 遣內侍別監 祭雉嶽之神” (태종실록 권 30 태종 15년 10월)
“江原道國行襄陽府… 原州雉嶽山小祀 祠廟位版 書雉嶽之神” (세종실록 권 76 세종 19년 3월조)
“原州名山曰雉岳 在州東 春秋降香祝 致祭小祀” (세종실록 권 153 地理志)
“…五冠山 鷄籠山 雉岳山 爲名山… 依例致祭”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조)
“雉嶽山祠 在山頂 俗稱普門堂 春秋降香祝致祭”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6 原州 '祠廟')
신경철, 「지명에 나타난 원주의 토속신앙」, 『원주열』 6호, 1996.
- 5) 신경철, 「원주의 불교사찰 유적에 대하여」, 『원주열』 5호, 1994.
- 6) 『고려사』 권 104 列傳 17 元沖甲조
- 7) 선조 29년(1596)에 강원도 관찰사 鄭逵가 祀壇을 설치하고 元沖甲을 제사했다. (眉叟記言, 文穆公壙銘)

분들만을 들여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원주를 대표하는 훌륭한 삶을 산 분들이다. 원주의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은 이분들의 삶과 정신을 살펴봄으로써 깨달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조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과 삶을 교육 보급하여 본받게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원주에서 칠봉서원과 충렬사를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그 의미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3. 칠봉서원 복원의 의의

서원은 그 지역의 가장 존경받는 先祖들을 享祀하고 후진을 가르치는 조선조의 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서원은 그 지역의 정신적 요람이며 교육의 전당이었다. 그래서 중종 38년(1542)에 白雲洞書院⁸⁾이 창설된 이후 곳곳에 많이 설립되었다.

강원도에는 명종 11년(1556)에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에 五峰書院이 가장 먼저 세워졌다. 모두 11개가 설립되었으나 賜額書院은 4개밖에 안 된다. 강릉의 松潭書院⁹⁾과 춘천의 文岩書院¹⁰⁾과 원주의 七峯書院¹¹⁾·陶川書院¹²⁾이 그것이다.¹³⁾ 강원도 3대 도시 중 사액서원이 원주에만 두 개인 것도 원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칠봉서원은 광해군 4년(1612)에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 52번지에 서당으로 건립되었다. 12년 뒤인 인조 2년(1624)에 祠宇를 건립하고 고려말 조선초의 節義의 선비인 윤곡 원천석 선생을 제향하고 윤곡서원이라고 하였다.

인조 16년(1638)에 恒齋 鄭宗榮 선생과 久菴 韓百謙 선생을 배향하였고, 숙종 30년(1704)에는 觀瀾 元昊 선생을 배향하였다.¹⁴⁾

현종 10년(1669)에 忠烈祠를 세우고 元冲甲을 主享, 金悌甲과 元豪를 配享하였다. /현종 11년 (1670)에 額號를 내렸다.(關東誌, 原州邑誌)

고종 8년(1871)에 韓百謙을 賜額懸板과 位牌는 충북 괴산읍 능촌리에 있는 忠武公 金時敏의 사당에 모시고 忠愍祠와는 별도로 제향을 하였다.(1995. 6. 9. 확인)

8) 풍기군수 周世鵬이 경상도 영풍군 순흥면 내죽리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9) 윤곡 李珣 선생 배향

10) 李滉·李廷馨·趙綱·金澍 배향

11) 元天錫·元昊·鄭宗榮·韓百謙 배향

12) 觀雪 許厚 배향, 숙종 19년(1693)에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에 건립.

13) 강원도, 『鄉校書院寺刹誌』, 1992.

14) 『輿地圖書』原州牧 壇廟 七峯書院조

칠봉서원에 배향된 인물들은 모두 원주 사람으로 大義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윤곡 선생과 관란 선생은 원주에 은거하며 끝까지 節義를 지켰고, 항재 선생은 사회의 격랑 속에서도 청백리로 살았고, 구암 선생은 實學 개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칠봉서원의 사액은 현종 14년(1673)에 받았다. 규모가 26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고종 8년(1871)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폐철되고, 토지와 노비·전결·서책 등은 원주향교로 이관되었다.

칠봉서원은 17세기초부터 19세기 후반까지 260년 동안 존립하면서, 원주 지역민의 정신적인 고향 역할을 해 왔다. 그곳에 배향된 인물들은 이 지역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선조로 추앙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특히 칠봉서원이나 충렬사와 같이 개인이 아닌 여러 분을 제향한 경우에는, 祠·院은 주민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제향 인물은 지역인의 대표적인 숭모 선조로 마음 속에 새겨진다.

그런데, 칠봉서원과 충렬사에 제향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삶과 정신이 서로 같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곧, 다 같이 大義를 위해 일생을 살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칠봉서원에 제향된 분들은 節義의 인물들이고, 충렬사에 제향된 선조들은 忠義의 인물들이란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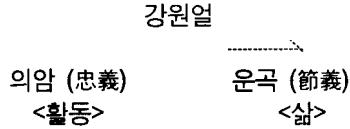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볼 때, 원주 지역인의 사상적 바탕은 大義이고; 죽음으로써는 忠義를, 삶으로써는 節義를 가장 훌륭하고 崇仰할 수 있는 德目으로 생각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제향 인물에 대한 연구는 원주열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다.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피고 학문과 사상을 고찰하여 그분들이 실천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내고 본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원주 지역인들의 정신적 지표를 밝혀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주민들의 삶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관계로 칠봉서원의 복원은 원주의 정신적 聖所와 후생 교육의 터전 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제향 선조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성과를 전시 교육 보급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함께 체험하며 생활하는 문화생활의 名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의 열은 세 중심도시가 표상하고 있는 인물들의 삶과 정신에서 기본적인 것을 추출해낼 수 있다. 학문적으로는 강릉의 윤곡 思想이, 국난극복의 활동으로는 춘천의 의암 忠義가,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는 원주의 윤곡 節義가 그것이다. 곧, 다음과 같이 忠·節·學이 세 頂點이 되어 강원도의 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상>
윤곡 (學問)



이렇게 볼 때 칠봉서원 제향 인물의 節義精神은 곧 강원도 얼의 중요한 한 柱礎가 된다. 원주의 얼이 그대로 강원도의 얼을 형성하는 기본을 이루는 것이다. 원주 충렬사 제향 인물의 忠義의 정신은 또한 춘천의 것과 合致되어 또 하나의 강원얼의 主軸이 된다. 이처럼 원주얼은 바로 강원도의 얼을 이루며, 그것은 다시 우리의 민족정신 형성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칠봉서원의 복원은 원주얼만이 아니라 강원도 얼의 확립과 선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나아가 올바른 민족정신의 고취와 배양에도 크게 힘이 되는 일이다. 칠봉서원의 복원이 단지 서원 건물의 복원이 아니고, 홍보와 교육 및 체험의 명소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칠봉서원은 원주 주민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고, 원주인의 삶과 체험의 名所가 되도록 복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충렬사의 복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충렬사는 忠義로, 칠봉서원은 節義로, 서로 쌍벽을 이루기 때문이다.

4. 윤곡학회와 원주

耘谷學會는 2001년 1월 30일 원주에서 창립되었다. 윤곡학회가 어떠한 활동과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윤곡학회 창립취지와 목적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 ◇ 창립 취지문 : "윤곡 선생의 심오한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여 이를 널리 선양하고, 나아가서 칠봉서원에 배향되었던 관란 원호 선생, 구암 한백겸 선생, 항재 정종영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비롯하여 그분들의 업적을 연구하고 이를 선양하여 원주의 얼을 강원도의 얼로 발전시키고, 이를 민족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 ◇ 정관의 목적 : "이 법인은 耘谷 元天錫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아울러 七峯書院에 配享된 觀瀾 元昊, 恒齋 鄭宗榮, 久菴 韓百謙 등을 비롯한 원주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국내외에 널리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운곡학회는 원주 지역의 정서와 주민들의 뜻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뜻있는 여러 시민들이 칠봉서원과 충렬사의 복원을 추진해왔고, 근래에는 원주시 당국에서 칠봉서원의 복원 계획과 예산을 세워 구체화하여 왔다. 2000년 7월에는 강원일보사에서 운곡 원천석 선생을 이달의 인물로 선정하였고, 또 11월 18일에는 운곡 묘역이 강원도 기념물 제75호로 지정되었다. 운곡학회는 바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분위기 속에서 창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운곡학회는 2001년 8월 6일에 강원도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2001년 9월 28일에는 창립 기념으로 제1회 전국학술대회를 원주시와 강원일보사·강원도민일보사의 후원을 받아 <강원의 열과 칠봉서원>의 주제로 운곡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칠봉서원에 제향된 운곡·관란·항재·구암 네 선조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문집의 발간도 준비중이다. 칠봉서원의 복원과 그 활용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세미나와 학술대회도 개최하였다. 발표논문집과 학회지 및 교육용 도서의 간행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아직은 기초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창립한 강릉의 울곡학회는 물론, 운곡학회와 같은 해에 창립된 춘천의 의암학회에 비해 활동이 저조하다.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과 시민의 참여가 적기 때문이다.

강릉의 栗谷學會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시 당국과 여러 기관과 지역 유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 해마다 학회지와 학술논문집의 발간을 비롯하여 학술회의 개최·울곡대상 시상·향토문화 강좌·울곡얼 심기 강좌와 교육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烏竹軒은 해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근래에는 외국인들도 자주 방문하여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춘천의 毅菴學會는 운곡학회와 같이 2001년에 창립되었다. 2001년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암관련논문선집』 I 집을 발간하는 등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암학회는 춘천시가 의암 유인석 선생 유적지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뜻이 모아져 창립되었다. 지역의 분위기에 맞춰 학회가 탄생한 것은 세 학회가 다 같다.

거의가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 울곡학회의 2003년도 사업계획과, 작년에 출발한 의암학회의 2002년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울곡학회의 2003년 사업계획>

1. 학회보 발간 (계간, 매회 4000부)

『밤나무골 이야기』 : 울곡 사상, 향현 연구, 향토사, 기타 교양

2. 학술논문집(제6호) 발간 (연간 2000부) : 울곡철학, 한국철학, 기타 윤리선양 등

3. 울곡학 학술회의 (10~11월) : 울곡사상의 탐구, 향토문화 정체성 연구

4. 울곡대상 시상 (10. 25. 울곡제) : 학술부문, 공로부문, 각 1명 (상금 각 5,000원)

5. 향현 연구 국제학술강연회 (5~6월, 2003 강릉 관광민속축제 관련 행사)

내용 : 향현과 지방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강의

6. 향현 및 향토문화 강좌 (11~12월, 관내 고교 3년생 2,000명)

내용 : 향토 향현, 향토 문화 알기 강좌

7. 울곡 얼 심기 강좌 (3~6월, 9~11월, 관내 중학생 특활시간 활용)

내용 : 울곡과 신사임당의 얼 심기 강좌

8. 예절총서 발간 (5,000부)

내용 : 전통, 현대 예절 총서 (국민도의 재건, 국민윤리 확립 교재 활용)

9. 교육강좌

① 평생교육강좌 (16주, 2회, 총 100명, 시민 대상)

내용 : 울곡학, 한국학, 향토학, 미래학 강좌

② 특별강좌 (2~12월, 일반 시민 및 학생 대상)

내용 : 울곡과 신사임당의 얼 선양 특별 강연회

③ 생활예절 강좌 (3~12월, 일반 주부 및 학생 대상)

내용 : 현대생활예절 및 다도 강좌

④ 외국인 예절 체험 강좌 (3~6월, 8~10월, 2,000명)

대상 : 일본 돗토리현 수학여행단 학생, 일본 일반인 관광여행단

내용 : 외국인 참여 향토문화 체험교실 운영

과정 : 행다, 인절미, 다식 만들어 먹기, 농악 풍물 익히기, 팽이, 널뛰기 등

10. 울곡제 경축 학술논문 공모 (전국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내용 : 울곡학 및 한국학 연구 학술논문

시상금 : 대상 800,000원 → 1,500,000원 (금년 인상)

11. 울곡제 경축 웅변대회 (전국 초·중·고·대학·일반)

내용 : 울곡사상 선양 웅변대회

시상금 : 인상 조정

12. 울곡총서 CD 제작 (2년 계속 사업)

내용 : 울곡 관련자료 총망라 CD 제작

<의암학회 2002년도 사업계획>

1. 학회 전국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예산 : 전국학술대회 : 300만원 (강원문화재단 지원, 학회 부담)

국제학술대회 : 2,000만원 (보훈청·춘천시·강원문화재단 지원, 학회 부담)

2. 학술지 『의암학연구』 (가칭) 창간호 발간 (국판 350면, 500부)

예산 : 790만원 (춘천시 지원, 학회 부담)

3. 『의암관련논문선집』 I 발간 (4×6배판 500면, 1,000부)

예산 : 1,350만원 (춘천시 지원)

4. 『국역 의암집』 I 번역 출간 (4×6배판 700면, 1,000부)

예산 : 3,000만원 (강원도 지원)

여기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는 춘천의 의암 유인석 선생 유적지 조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암 선생의 유적지는 선생의 묘소와 사당이 있는 춘천시 남면 가정리 473번지에 조성하고 있다. 춘천시에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계획한 이 공사는 2000년에 착공하여 2002년 말에 완공된다. 대지 85,893㎡의 넓은 공간에 건축면적 811㎡로, 기존의 묘소와 사당을 경내에 포함하면서, 생가 복원과 영정각·전시관을 비롯하여 동상·정문·협문·삼문과 관리사무소·휴게소·화장실·정자·교량·담장 등 여러 시설을 시공하고 있다. 상하수도과 전기 및 통신시설 설비 등 총 68억 18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고 있다.

연못과 주차장까지 갖춰서 의암 선생 유적지는 제향과 참배는 물론, 여러 유적 유물과 각종 자료들을 살펴보며 선조의 훌륭한 삶을 기리고 교육하고 본받으며, 동시에 아주 좋은 나들이와 휴식 공간으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주시에서는 지금 칠봉서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가 칠봉서원을 왜 복원하며, 또한 어떠한 시설들을 갖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전통 건물을 세워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드리고자 하는 정도로는 복원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강릉의 오죽헌과 완공 단계에 있는 춘천의 의암 선생 유적지 조성은 매우 좋은 참고가 된다.

다행히 원주에서도 칠봉서원 복원의 추진 분위기와 함께 운곡학회가 창립되었다. 그 창립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운곡학회의 활동과 역할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각처의 다수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행정 당국과 지역의 여러 기관 단체의 지원을 받아 창립 취지와 목표에 따라 활동하게 될 때 그 성과는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기대가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주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이 필요하다.

원주는 강원도의 500년 수부였고, 가장 인구가 많으며,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로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에 따라서는 급진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원주가 강원도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문화를 일으키며 훌륭한 여러 선조들이 살아온 지역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지원과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5. 맺는 말

근래에 원주에서 지역을 표상하는 선조들을 기리고 그 정신과 삶을 본받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매우 필요하고도 의미 깊은 일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올바르게 훌륭하게 산 선조들의 정신과 삶을 이어받고,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과 단결력을 불러일으켜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운과 분위기 속에서 우선적으로 등장한 것이 칠봉서원과 충렬사의 복원 노력이다. 더구나 이것은 오래 동안 많은 지역민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왔고, 또 근래에는 원주시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우선 먼저 추진되고 있는 칠봉서원의 복원은 조속히 착공되어야 할 것이다. 선조들의 훌륭한 사상과 정신을 계승 교육하고, 그러한 정신을 많은 주민들이 생활화할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원주에는 누구나 찾아가서 참배하고 둘러보고 견학하면서 원주의 얼을 깨달으며 체험할 수 있는 유적문화의 공간이 없다. 산과 강을 따라 놀고 즐기는 지역보다 훌륭한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느끼면서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하다. 칠봉서원은 바로 그러한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원주의 대표적인 공간으로써 시급히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화 시대에는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때 지역은 발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칠봉서원의 복원은 원주 주민들의 자긍심 고양과 훌륭한 정신 체험의 공간으로서 원주 지역의 발전에 여러 가지로 크게 기여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高麗史 (아세아문화사, 1983)
 北譯 高麗史 (사회과학원 1962 / 신서원 1992)
 關東誌
 三國史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1976)
 朝鮮王朝實錄 (일본 學習院 東洋文化研究所, 1956)
 新增東國輿地勝覽 (명문당, 1981)
 新增東國輿地勝覽 (아세아문화사, 1983)
 關東誌·原州邑誌
 輿地圖書
 朝鮮各道邑誌 (1929)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地方行政區域要覽 (1978)
 강원도(1992), 향교서원사찰지
 원주군(1992), 원주지방의 서원학술조사보고서
 -----(1994),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원주문화원(1975), 원주·원성 향토지
 원주향교(1995), 원주향교지
 의암학회(2001), 毅菴 柳麟錫 선생 연구의 현황과 과제
 권상로(1961), 한국지명연혁고, 동국문화사.
 김교회(1995), 충렬사의 배향인물, 원주문화원.
 -----(1996), “恒齋 鄭宗榮 선생의 行狀”, 원주월 6호.
 김의숙(1994), “원주군의 민속”,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원주군
 신경철(1999), 원주에 가면 문화가 보인다, 영서신문사.
 -----(1994), “원주의 불교사찰 유적에 대하여”, 원주월 5호.
 -----(1996), “지명에 나타난 원주의 토속신앙”, 원주월 6호.
 운곡학회(2001), 江原의 열과 七峯書院
 원영환(1998), “강원지방 서원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3.
 원용문(2000), “운곡 원천석의 생애 연구”, 원주월 10호.
 이상보(1997), 觀瀾遺稿
 全石萬(1989), “金悌甲 牧使의 碑文 譯”, 원주월 창간호.

----- (1990), “치악산 東岳祭에 관한 再考察”, 원주열 2호.

조승호 (1997), “조선시대 강원도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제2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최복규·최승엽 (1994), “원주군의 선사유적·고분”,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원주군.

최승순 (1989), “치악산 동악제단의 고찰”, 강원문화논총, 강원대

----- (1989), “강원도 書院 고찰”, 강원문화논총, 강원대.

韓百謙의 『東國地理誌』 成立背景과 性格

원 유 한(동국대 명예교수)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構成과 性格 |
| 2. 성립배경 | 1) 構成 |
| 1) 人間像 | 2) 性格 |
| 2) 歷史背景 | 4. 맺음말 |
-

1. 머리말

인간의 사고 발달과정에 있어서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이고, 역사학과 지리학은 인류 역사상 일찍부터 발달한 학문이며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학자들은 “역사는 움직이는 지리이고 지리는 정지한 역사”¹⁾라고 하거나, “역사 없는 지리가 움직이지 않는 해골과 같다면, 지리 없는 역사는 일정한 거소(居所)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랑자와 같다”²⁾고 하였다. 이로써 역사지리학(歷史地理學) 연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학사(史學史)에서 역사지리 연구는 한백겸(韓百謙)(1552~1615)의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에서 시도되기 시작하여, 실학파(實學派) 학자들에 의해 하나의 학풍을 이룬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 한백겸의 역사지리학, 즉 『동국지리지』의 저술동기, 서술체제, 구성내용, 성격과 영향 및 역사적 위치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들이 밝혀졌다.³⁾ 그

-
- 1) 기꾸치도시오(菊地利夫)-윤정숙 역, 『역사지리학방법론』, 이회문화사, 1995, 32쪽.
 - 2) 刑基柱 抄譯, 『歷史的 記錄으로서의 地理學』, 『地理』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 61쪽.-[East, W. G: The Geography behind of History, London, 1935].
 - 3) 鄭求福, 「韓百謙의 『東國地理誌』에 대한 一考察-歷史地理學派의 成立을 中心으로-」, 『全北史學』 2, 1978 ; 「韓百謙의 史學과 그 影響」, 『震檀學報』 63, 1987 ; 尹熙勉, 「韓百謙의 『東國地理誌』」, 『歷史學報』 93, 1982 ; 「韓百謙의 學問과 『東國地理誌』의 著述動機」, 『震檀學報』 63, 1987 ; 趙珖, 「朝鮮後期の 歷史地理 研究」, 『第9回 韓國史學術會議, 朝鮮時代의 歷史意識』,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진단학회, 「第15回 韓國古典研究 심포지움-주제:『東國地理誌』의 綜合的 檢討」, 『震檀學報』 63, 1987 ; 韓永愚, 『朝鮮後期 史學史研究』, 一志社, 1989, 9쪽~65쪽 ; 朴仁鎬, 『朝鮮後期 歷史地理學 研究』, 以會文化社, 1996, 9쪽~22쪽 참조.

러나 이상의 연구업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동국지리지』의 저술동기랄까, 그 배경에 관해 학자들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과 역사적 배경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강역·관방 등을 중심으로 한 한백겸의 역사지리학이 어떻게 인문지리(人文地理), 정치지리(政治地理), 경제지리(經濟地理) 등 각 部門⁴⁾으로 확대 발전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보다 널리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학자들의 견해를 재검토하고, 종합 정리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덧붙여 보고자 한다.

2. 성립배경

1) 人間像

한백겸은 1552년(명종 7)에 경성부판관(鏡城府判官) 효운(孝胤)의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1615년(광해 7) 64세로 죽었다. 자는 명길(鳴吉), 호는 구암(久庵), 본관은 청주(淸州), 당색(黨色)은 동인(東人) 중 북인(北人) 계열이다. 그의 생애 60여 년간은 조선전기 사회가 그 후기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한백겸의 가문은 5대조 계희(繼禧)가 세조·성종대에 국가의 각종 편찬사업에 종사하는 등 대표적 훈구파 명문에 속하였다. 그러나 증조부와 조부는 중앙의 고급관료로 진출하지 못하고 음서(陰敍)를 통해 군수직에 머물렀다. 그의 아버지 효운은 훈구파 가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과거시험을 통해 관계에 진출, 한림(翰林)에 임명되었으나 요절하였다.⁵⁾ 한백겸 일가(一家)의 가세는 숙부 효순(孝純)과 동생 준겸(浚謙) 등이 고급관료로 출세함으로써 일어르게 되었다.

한백겸은 18세 때 서경덕(徐敬德)의 문인 민순(閔純)으로부터 성리학을 배웠으나, 기철학적(氣哲學的) 색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대승(奇大升)·이이(李珥)의 사상에 가깝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⁶⁾ 이를 통해, 그의 성리학설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원리를 궁구(窮究)하는데 있었겠지만, 관료에게 필수적인 경세학(經世學)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탐색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백겸의 학문적 연구태도의 특징은 비판적인데, 선배들의 견해는 물론 심지어 주자(朱子)의 견해까지도 비판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의문이 있을 때는

4) 孫進己·王綿厚 等 主編, 『東北歷史地理』,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3쪽.

5) 鄭求福, 앞의 논문, 1978 ;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 韓永愚, 앞의 책, 1989. 23쪽.

6) 鄭求福, 앞의 논문, 1978 ; 尹熙勉, 앞의 논문, 1987.

후대의 주소(註疏)가 아닌 경서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문헌고증에 의한 실증적 방법을 통해 자기 나름의 해결방안을 모색, 제시하려 하였다. 또 ‘부이독 앙이사(俯而讀 仰而思)’ 또는 ‘공지학 이사위주(公之學 以思爲主)’라고 한 사실을 통해 독서와 사색지향적인 학문성격도 엿볼 수 있다. 한백겸은 정구(鄭逑)·홍가신(洪可臣)·이수광(李睟光)·오운(吳濬)·허성(許篈) 등 당대의 많은 거유(巨儒)들과 교류하였는데,⁷⁾ 이들 중에는 도가풍(道家風)의 인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이로써 그의 학문적 교유의 폭이 넓었고, 학문적 성격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백겸은 28세 때 소과에 합격하고, 대과시험 준비를 위해 성균관에 입재(入齋)해 있던 중 1580년(선조13) 부친상, 1584년(선조 17)에 조모상을 당하였다. 5년간의 상중(喪中)으로 두문불출하고 주역(周易)·예학(禮學)·경서(經書) 및 성리서(性理書) 등의 경학지향적(經學指向的) 학문연구에 몰두하였다. 특히, 주역에 일가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민순에게 성리설을 배웠다는 점과 가학 전통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⁹⁾ 또한 죽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철학 차원 이상의 종교적 방법으로 극복하려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성리학의 대가 이이가 모친상을 당해 한때 불경 공부에 몰두한 것과 본질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백겸의 관직경력에서 주목할만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¹⁰⁾ 그는 34세 되던 1585년(선조 18) 교정청(校正廳) 교정낭(校正郎)에 임명되었다. 1589년(선조 22)에는 전주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으로 재직 중, 기축옥(己丑獄) 때 정여립(鄭汝立)의 조카 이진길(李震吉)의 시신을 수습한 죄로 함경도에 유배되었다. 왜란이 일어난 1592년(선조 25) 사면되어 돌아오는 길에 왜군과 내통한 주모자를 죽인 공으로 내자시직장(內資寺直長)에 특별 임명되었다. 함경도 유배생활이 한백겸의 개인적 좌절이요 시련이었다 하면, 왜란은 국가와 민족의 시련이요 비극으로서, 그의 인생관은 물론 국가관 내지 민족의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593년 한성부참군(漢城府參軍)으로 난민에게 죽을 끓여주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전란의 참상을 목도하였을 것이다. 이로써 그는 침략자를 증오하고 무기력한 왕조당국을 비판하는 한편, 한 관료 내지 지식인으로서 부국강병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실학(實學) 선구로서의 현실대응방안 즉 토지제도과 수취체제의 개편을 통해 전란으로 파탄에 직면한 국가경제를 재건하겠다는 발상을 모색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백겸은 1607년(선조 40) 호조참의(戶曹參議)가 되어 평양에 갔을 때 기전유제(箕田遺制)를 실사하여 기전도(箕田圖)를 작성하였고,¹¹⁾ 2년 후 공물제도 개혁방안 즉 ‘공

7) 위와 같음.

8) 진단학회, 앞의 논문, 1989 참조.

9) 鄭求福, 앞의 논문, 1978 ; 尹熙勉, 앞의 논문, 1987.

10) 尹熙勉, 앞의 논문, 1987.

11) 『久庵遺稿』, 「箕田遺制說·箕田圖·箕田圖說跋·箕田圖說後序」 ; 金容燮, 『增補版, 朝

물변통소(貢物變通疏)를 구상 제의하였다.¹²⁾ 한편, 한백겸은 왜란 중 안악현감(安岳縣監)으로 치적이 높이 평가되었는데, 이때 축적한 지방관으로서의 경륜은 이후 영월군수(寧越郡守)·연안부사(延安府使)·청주목사(淸州牧使) 뿐 아니라 호조참의 등, 그가 역임한 내외관직 재임시에 활용되고, 확대 심화되었을 것이다. 그가 내외관직을 역임하면서 추구한 경제관 중 중요한 특징은 변화수용적인 진보적 개혁의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물제도 개혁안의 내용, 즉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므로 때에 맞추어 변통(變通)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한백겸의 인간성 내지 성격을 보면, 실리적 타산보다는 명분과 의리 등 윤리지향적 가치를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관이나 중앙관료로서 심각한 여러 정책현안을 처리하면서 실용·실증·실제성을 중시하는 실리적 내지 공리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2) 歷史背景

다음은 한백겸이 『동국지리지』를 저술하는데 직접·간접적 영향을 준 역사적 현실, 즉 그가 경험한 시기의 제반 역사적 상황을 대강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실학지향적 사회사조의 생성 발전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개성지방에서는 조선왕조 초기부터 국가 통치이념인 성리학의 수용을 거부하고, 이에 대응할 새로운 가치체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반성리학적 내지 실학지향적 사회사조가 생성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성지방에서 생성된 실학지향적 사회사조는 성리학적 통치이념 태내로 진입, 근기·한양 및 전라도 일부지방의 실학지향적 사회사조의 성장 발전을 선도 내지 촉진하였다.¹³⁾ 이 같은 과정에서 저술된 『동국지리지』와 『구암유고』 내용에서 비판의식과 실용·실증적 현실인식 및 변화수용적 개혁의식 등, 실학 선구로서의 학문 및 사상적 면모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왕도사상의 패도지향적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실학자 이익(李瀾)이 덕(德)·예치(禮治) 중심의 왕도사상의 한계를 정(政)·형치(刑治) 중심의 패도사상으로써 극복한다고 하는 소위 ‘왕패병용(王霸并用)’론을 중국의 역사적 사례에 근거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¹⁴⁾ 이 같은 정치사상의 변화추세는 한백겸의 지리관 내지 국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고구려가 강성할 때 강역이 확대되었는데,¹⁵⁾ 신라 통일 이후 축소되어 국세가 위축됨으로써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

鮮後期 農業史研究-農業과 農業論의 變動-』Ⅱ 一潮閣, 1990. 412쪽.

12) 『久庵遺稿』, 「貢物變通疏」.

13) 元裕漢, 「開城, 朝鮮後期 實學思想의 搖籃」, 『東國歷史教育』 5, 1996.

14) 『星湖塞說』 26, 「經史門」, 「王霸并用」.

었다고 하였다.¹⁶⁾ 한백겸의 패도지향적 국세관은, 왕도정치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패도지향적 정치사상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동국지리지』 저술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국가 경제적 현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국가 경제체제는 왜란으로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란 이후 토지제도의 개혁과 조(租)·용(庸)·조(調) 등 수취체제를 개편하려 하는 동시에 은광개발, 소금전매 및 화폐 주조유통 등 재원개발을 위한 응급조치를 추구하였다.¹⁷⁾ 이 때 한백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토지제도와 공물제도 개혁안을 구상 제의하였다. 공물제도 개혁안에는 상품유통의 활성화 방안이 구상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란을 전후해 대두한 소위 ‘이말보본론(以末補本論)’, 즉 상공업으로써 농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일부 시론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백겸이 국가 경제재건책으로 구상 제시한 개혁론에 반영된 경제사상은 『동국지리지』에 제시된 강역확대론과 본질적으로 공통되는 면이 있다 할 것이다.

넷째, 한백겸이 왜란과 그 이후의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은 왜란으로 인명 손실·문화재 소실·정치적 혼란 및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여, 전체 국민의 좌절감과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편 만주 여진족은 명나라의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타 급성장하여 일본보다 더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⁸⁾ 한백겸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무기력한 왕조당국을 비판하고, 일본의 국력을 재평가 인식하는 동시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명에 은의(恩義)를 느꼈을 것이다. 또 국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한 국세를 강화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제고하여 전체 국민의 사기를 고취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국세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보다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의 획득이 보장되는 강역의 확대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역사지리적 인식논리를 통해 현실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조선왕조 초기 이래의 역사학과 지리학 발전을 대강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 전기의 사서, 『동국통감(東國通鑑)』의 특징은 중국의 전통적 역사서술방법을 토대로 하여 서술체제나 내용구성이 규격화 경향을 띤 관찬사서였다. 이것이 16·17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경향의 사찬사서들이 각계 지식계층에 의해 나와¹⁹⁾ 역사학에 대한 지식이 보다 널

15) 『東國地理誌』, 「高句麗 封疆」.

16) 『東國地理誌』, 「新羅 形勝·關防」.

17) 元裕漢, 「官僚學者 金盞國의 貨幣經濟論」, 『朝鮮時代史研究-龍巖車文燮教授華甲記念論叢-』, 1989.

18) 『光海君日記』 17, 光海君 1年 6月 丙寅·丁丑; 『光海君日記』 14, 光海君 1年 3月 甲申; 『光海君日記』 80, 光海君 6年 7月 癸酉·辛未; 李丙燾, 「광해군의 대후금정책」, 『국사상의 제문제』 1, 1959; 尹熙勉, 앞의 논문, 1987.

리 확대 보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81년(성종 12)에는 관찬지리서를 집대성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되었다.²⁰⁾ 17세기 중엽 유형원이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동국여지(東國輿地志)』를 저술했듯이,²¹⁾ 이후의 지리학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함께 16세기에는 각 지방에서 읍지(邑誌)를 편찬하여 지역 중심의 역사 내지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방통치 내지 개발수단으로 활용하려 하였다.²²⁾ 이처럼 역사학과 지리학이 발전하게 되자 두 학문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즉 조선전기의 사서와 지리서 등, 각종 저술에 수록된 역사지리에 관한 논의와 견해가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17세기 초 『동국지리지』의 성립 기반이 되었다 할 것이다.²³⁾

여섯째, 중국의 사서와 지리서로부터 받은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백겸은 고려 시대를 서술할 때는 국내 사서·지리서, 삼국 이전시기·삼국시대는 국내 및 중국의 사서·지리서를 참고 인용하였다.²⁴⁾ 국내 사서·지리서의 서술체제 및 방법도 대체로 중국의 그것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동국지리지』를 저술할 때,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즉 역사적 현실인식 내지 대응태도가 어떠했느냐에 있다고 본다. 그가 삼국 이전시기를 『한서(漢書)』와 『후한서(後漢書)』 위주로 서술한 이유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직접 서술한 사서를 참고 인용한 것이다.²⁵⁾ 이것은 국내 사서로써 민족사를 정리 서술하기 어렵다는 당시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민족사를 정리 체계화해 보겠다는 그의 투철한 주체의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백겸은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의 역사지리학계의 분위기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을 것이며, 중국을 통해 수용되는 서양 역사지리학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²⁶⁾

일곱째, 한백겸의 역사인식능력 및 서술능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를 저술하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국내와 중국의 사서·지리서를 참고 인용하였고,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비판 고증하고, 비교 평가하며, 자신의 견해

19) 鄭求福, 「16~17세기의 私撰史書에 대하여」, 『全北史學』 1, 1977.

20) 崔永俊,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 1992.

21) 朴仁鎬, 「柳馨遠의 『東國輿地志』에 대한 一考察-歷史意識과 關聯하여-」, 『清溪史學』 6, 1989.

22) 鄭求福, 앞의 논문, 1978.

23) 趙珧, 앞의 논문, 1997 ; 朴仁鎬, 『朝鮮後期 歷史地理學 研究-文獻備考 輿地考를 中心으로-』(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5, 8쪽~9쪽.

24)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25) 『東國地理誌』, 「後漢書」, 「三韓傳」.

26) 趙珧, 앞의 논문, 1997 ; 朴仁鎬, 앞의 책, 1996, 15쪽.

를 제시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그의 역사인식 능력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당시의 전통적 교육과정에서는 사서로 들어가기 전에 『자치통감(資治通鑑)』을 배웠다. 한백겸도 『자치통감』을 통해 주대(周代)부터 송대(宋代) 이전까지의 중국 역사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되는 경서²⁷⁾ 공부를 통해서도 역사이해시각·분석고찰 및 평가방법 등을 습득하여 『동국지리지』를 저술할 수 있는 역사인식능력 및 서술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덟째, 당파 내지 당색의 차이에 따라 지역 중심으로 분립한 기호사림과 영남사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동인으로 영남사림에 속해 있는 오운이 『동사찬요(東史纂要)』에서 삼국 중 신라를 내세우자, 고구려·백제와 연결되는 기호사림은 『동사찬요』가 간행된 직후부터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한백겸은 동인 중 복인 계열이고 기호사림과 교유관계가 깊은 인물로서 『동사찬요』를 비판하게 된 것은 정치이념과 지역의식 내지 문화의식을 달리하는 영남사림과 기호사림 사이에 일어난 갈등관계의 한 표출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⁸⁾

끝으로,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17세기초에 『동국지리지』를 저술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²⁹⁾ 한백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판의식이 뚜렷하여 『동사찬요』를 읽고 그 내용을 평가하는 중, 오운이 종래의 잘못된 삼한(三韓)·사군설(四郡說)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 비판하였다.³⁰⁾ 한편, 오운은 한백겸의 비판을 받아들여 「동사찬요후서」를 『동사찬요』에 게재하고, 「지리지」 1권을 써서 1614년(광해 6)에 개찬본(改撰本)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한백겸은 주로 성리학적 인식체제로 저술된 『동사찬요』를 비판하고 실학적 인식체계에 의해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였고, 오운은 한백겸의 실학적 인식체계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성리학적 역사인식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셈이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동국지리지』 저술의 계기 내지 동기가 『동사찬요』에 대한 비판에 있다고 보면서도, 조선후기 역사지리학의 생성 발전과정에서 『동사찬요』의 역사적 위치가 소홀히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동국지리지』가 조선후기 역사지리학의 효시라고 한다면, 『동사찬요』 역시 그에 상응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백겸이 『동사찬요』를 읽고 받은 영향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었으면, 죽음을 앞두고 운필(運筆)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홍일의

27) 경서는 본질적으로 사서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余英時(曹秉漢 譯), 「章學誠의 六經皆史說」, 『中國의 歷史認識』, 創作과 批評社, 1985).

28) 韓永愚, 앞의 책, 1989, 22쪽~23쪽.

29) 『동국지리지』 「韓興一跋文」은 부분적인 오류는 있으나, 직접적인 저술동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鄭求福, 앞의 논문, 1978 ;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 韓永愚, 앞의 책, 1989).

30) 『久庵遺稿』 上, 「東史纂要後敘」.

대필로써 『동국지리지』를 저술하게 되었을까? 오운의 『동사찬요』가 조선후기 역사지리학의 생성 발전과정에 준 영향, 즉 그 역사적 의미를 보다 확대 인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3. 構成과 性格

1) 構成

한백겸은 『동국지리지』를 삼국 이전 시대·삼국시대 및 고려시대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삼국 이전 시대를 보면, 거의 『한서』·『후한서』 「동이전」 기사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으며, 사군(四郡)·이부(二府)·이군(二郡)의 설치연혁을 간략하게 서술해 놓았다. 한백겸의 이 시대 역사인식 중 특기할 만한 사실은 삼한 사군의 위치 비정과 관련되는 소위 ‘북자북남자남(北自北南自南)’이라는 견해이다.³¹⁾ 이 설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발전을 중국문물의 전래, 파급과정으로 이해하는 전통적 역사인식론을 비판하고 독자적이고 주체적으로 생성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데서 발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같은 주장에 투영된 역사 내지 문화적 주체의식은 그것 자체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역사의식 내지 문화의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어야만 할 것이다.

삼국시대의 내용을 보면, 고구려·백제·신라의 순으로 각국의 국도(國都)·봉강(封疆)·형세(形勢)(형승)·관방(關防)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이래 『동국통감』에 이르기까지 삼국의 건국을 신라·고구려·백제의 순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현재처럼 고구려·백제·신라의 순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종래의 견해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기 설득력이 있으나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견해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로 순서를 정한 이유를 각각의 사회발전 순위에 따른 것으로 보았으면서도, 삼국의 건국 연대가 종래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³²⁾ 둘째 견해에서는 삼국의 건국 연대가 신라·고구려·백제의 순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강조하였으나, 사회발전 순위에 따라 고구려·백제·신라의 순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³³⁾ 흔히 『한서』·『후한서』 등 중국의 고대 역사서에는 삼국 등 한국 고대사회의 생성 발전상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기술

31) 『동국지리지』, 「삼한조」.

32) 정구복, 앞의 논문, 1978.

33) 윤희면, 앞의 논문, 1982.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중국 역사서를 참고 인용하여 삼국 이전 시대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삼국사회의 성장 발전 순위를 이해 파악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한백겸은 사회발전 순위에 따라 삼국사를 서술하였으면서도 『삼국사기』 등의 역사서에 나타난 삼국의 건국연대를 수정하는 일은 유보해 두었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삼국사기』나 『동국통감』은 매우 세련된 서술체제와 합리적 논리전개로써 극히 목적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삼국의 건국연대만을 부분적으로 떼어내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한백겸이 『동국지리지』를 저술한 직접적인 동기가 신라 중심 삼국관을 강조한 『동사찬요』를 비판하는데 있다고 하는 사실, 신라 중심 삼국관을 강조하는 영남사람과 대립하고 있는 기호사람과 인간적·학문적 교류가 잦았다는 사실,³⁴⁾ 『동국지리지』는 짧은 기간내에 그것도 운필이 어려워서 아들 홍일의 대필로 저술되었다는 사실, 선배 학자들의 학설은 물론 朱子의 견해도 비판했을 만큼 비판의식이 투철했다는 등등의 사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한백겸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신라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종래의 견해를 고구려 우선으로 수정 제시한 데는, 고구려를 통일민족국가의 정통으로 계승해야 될 것이라는 그 나름의 역사의식이 잠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를 보면, 대체로 삼국시대와 비슷한 체제로 기술되어 있으나, 행정구역 보다 형승과 관방 등 군사적 거점에 비중을 두었다. 이것은 이민족과의 대립 항쟁이 비교적 빈번했던 고려시대 대외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를 고려시대까지 서술하였으나, 구성내용에 투영된 시대정신 내지 역사지리의식이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삼국 이전 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시기는 물론, 조선전기 내지 그 후기 초(1615)까지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동국지리지』의 내용에는 조선전기에 편찬된 각종 역사서와 지리서가 참고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전기의 성리학적 인식체계를 극복하고 조선후기 초의 실학적 인식체계에 의해 기술된 최초의 역사지리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동국지리지』 구성내용을 통해 부족국가로부터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사의 성장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귀속적 분권체제(歸屬的 分權體制)를 극복하고 집권적 관료지배체제를 지향하는 한국사의 성장 발전추세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사상사적 측면에서 볼 때, 다원적인 역사계승의식의 일원화와 유(儒)·불(佛)로 이원화된 통치이념의 일원화 지향적 추세를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³⁵⁾

34) 한영우, 앞의 책, 1989, 22쪽~23쪽.

35) 「三國 以前 時代」-前漢書朝鮮傳, 後漢書高句麗傳, 後漢書東沃沮傳, 後漢書濊傳, 後漢書扶餘傳, 後漢書邑婁傳, 後漢書三韓傳, 四郡, 二府, 二郡. 「三國時代」-高句麗(國都·封疆, 形勢·關防) 附渤海國/百濟(國都·封疆·形勢·關防) 附箕準城, 報德城/新羅(國都, 封疆, 形勢·關防) 附金官國, 伽倻國, 泰封國, 後百濟國. 「高麗時代」-國都, 封疆·形勝·關防

한편, 『동국지리지』의 본문(本文)과 사론(史論)에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이 참고 인용되어 있다. 삼국 이전 시대의 본문에는 『동국통감』·『여지승람』 등 국내 문헌 2종류와 『한서』 조선전·『후한서』 동이전 등을 비롯한 중국 문헌 5종류, 사론(愚按)에는 『동국통감』·『동사(東史)』 등 국내 문헌 2종류와 『한서』·『후한서』를 비롯한 중국 문헌 4종류가 참고 인용되었다. 이 시대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중국 역사서와 지리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할만큼, 거의 중국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 당시의 역사를 기술하는데 참고 인용할 국내 문헌이 별로 없기도 하였거니와, 그 당시에 기술된 중국 문헌이 오히려 사료로서의 신빙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삼국 이전 시대의 역사를 고증하는데는 그 당시에 기술된 문헌이 신빙성이 크다고 보았던 것이다. 삼국시대의 본문에는 『동사』·『여지승람』 등을 비롯한 국내 문헌 6종류와 『당서(唐書)』·『통전(通典)』 등을 비롯한 중국 문헌 5종류, 사론에 국내 문헌 4종류와 중국 문헌 3종류가 참고 인용되었는데, 중국문헌 보다 더 많은 종류의 국내 문헌이 참고 인용되었다. 고려시대의 본문과 사론에는 각기 『고려사』·『여지승람』 등 국내 문헌만이 참고 인용되었다.³⁶⁾ 이처럼 『동국지리지』 기술에 참고 인용된 문헌 중 시대가 내려오면서 국내 문헌이 중국 문헌 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의 역사학 내지 사학사 발전추세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사 내지 민족문화의 주체적 발전상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性 格

한백겸이 역사적 전환기에 저술한 역사지리서, 『동국지리지』의 역사적 성격을 과연 어떻게 평가 인식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동국지리지』 성격의 특징으로서 투철한 비판의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주자의 견해까지도 비판한다거나, 『동사찬요』를 비판 극복한다거나, ‘북자북남자남’설과 삼국의 서술순서를 수정한다던가, 뚜렷한 사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든지, 주리론과 주기론 중 어느 학설도 일관되게 따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 비판의식이 매우 투철하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³⁷⁾ 즉 한백겸은 중세적 역사서와 지리서의 서술체계 및 의식의 기반이 된 중세적 가치체계의 한계를 비판 극복하고, 근대지향적인 실학적 현실대응방안으로서 『동국지리지』를 저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식대상을 선택하는데 있어 역사적 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체로 한백겸이 인식대상으로 중시한 역사적 현실은 조선전기가 후기로 옮겨가는 전

並附(『東國地理誌』; 윤희면, 앞의 논문, 1982).

36) 『동국지리지』; 윤희면, 위의 논문; 정구복, 앞의 논문, 1978.

37) 위와 같음.

환기의 역사적 상황이었다 할 것이다. 그는 전환기의 역사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인적·물적 자원의 확대를 통한 물리력의 강화는 강역·관방·형세 등 현실지향적인 지리학에서 모색하고, 침체된 국민 사기진작을 위한 민족적 정체성의 제고는 의식지향적인 역사학에서 찾으려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전환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의 현실대응방안으로서 저술된 『동국지리지』는 성리학 중심 중세적 가치체계의 한계와 그에 기반을 둔 『경국대전』적 제반 사회질서의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지향적인 실학적 가치체계 내지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한백겸의 의식 속에 저술되었다.

셋째, 인식대상을 선택하는데 있어 역사적 현실성과 함께 실용성 내지 공리성이 중시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한백겸은 국력 내지 국세를 인적·물적 자원을 포용하는 강역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왕도주의적 지리관을 비판하고 강역의 크기는 국세와 비례한다는 실용적 내지 공리적 지리관을 제시하였다. 덕치와 예치 중심의 왕도주의적 정치사상을 비판하고, 정치와 형치 중심의 패도지향적 정치사상의 수용을 강조하는 한편, 전통적인 '무본억말'적 경제사상을 비판하고 상업으로써 농업을 보완하는 '이말보본책' 실시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한백겸은 명분·의리·전통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정치경제사상을 비판하고, 실용성 내지 공리성을 중시하는 실학적 정치경제사상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제를 분석 고찰함에 있어 실증적 방법을 중시하는 실증의식을 지적할 수 있다. 『동국지리지』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의 지리적 위치를 밝히기 위해 국가 강역의 변동, 강역 내 지역의 변화를 여러 기록의 고증을 통해 실증하고자 하였다.³⁸⁾ 『구암유고』를 보면, 한백겸이 평양에 갔을 때 기자정전유지를 실사, 기전도설을 작성하여 종래의 견해를 비판하고 자기 주장을 제시하였고, 지난날 지방관료로서의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공물제도 개혁론을 구상 제의하였다. 이처럼 현장실사와 실제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실증의식은 『동국지리지』의 내용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³⁹⁾

다섯째, 역사적 사실의 평가 인식태도에서 엿보이는 객관·합리성을 들 수 있다. 그는 고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여 결론을 내리게 될 경우, 독단이나 편견에 빠지지 않고 객관·합리적 입장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거나 단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을 유보하기도 하였으나 한 역사적 사실이 여러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증하여 확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는 소신 있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⁴⁰⁾ 객관·합리적인 성격은 위에서 지적한 비판의식 및 실증의식 등과 함께 실학의 주요 성격인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과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38) 윤희면, 앞의 논문, 1982.

39) 앞의 책, 『구암유고』, 「기전유제설」; 「기전도」; 「공물변통소」.

40) 윤희면, 앞의 논문, 1982.

할 것이다.

여섯째, 추구한 목표가 변화수용적 진보성과 민족주의 지향적 주체성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에서 거듭 지적했듯이, 『동국지리지』는 조선전기사회가 후기로 옮겨가는 전환기를 맞아 종래의 역사학과 지리학이 가지는 한계를 비판 극복하고 새로운 인식체계를 필요로 하는 역사적 현실에 대응키 위해 저술되었다. 이로써 『동국지리지』의 성립배경을 사상적 측면에서 보면, 중세적 성리학 중심의 역사학과 지리학의 인식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비판 극복하고, 근대지향적인 실학적 인식체계로 새로워진 역사지리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성리학을 의식기반으로 한 『경국대전』적 제반 사회질서가 한계를 드러내고 근대지향적인 실학적 사회질서가 생성 발전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성립된 진보적 인식체계를 갖춘 역사지리서라 할 수 있다. 한편,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도 국력 내지 국세의 증강을 위해서 강역을 중심으로 한 현실지향적인 지리학과 민족적 정통성 제고를 통해 전체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의식지향적인 역사가 하나가 역사지리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위에서 17세기초에 한백겸이 저술한 『동국지리지』의 성립배경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한백겸의 인간상, 그가 경험한 시기의 역사적 배경 및 구성과 성격의 특징을 대강 살펴보았다. 『동국지리지』의 성립배경과 성격에 대한 고찰은 한백겸의 역사지리학의 구성내용은 물론, 그 역사적 성격과 위치를 포괄적이고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백겸의 생애 60여 년간은 왜란을 기점으로 하여 조선전기 사회가 그 후기사회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흔히, 이 시기는 성리학적 통치이념과 그에 기반을 둔 『경국대전』적 제반 봉건사회질서에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중·일 등 동북아의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한백겸은 전환기의 역사적 상황하에서 학자와 관료로서 살았고, 그의 인간상에 엿보이는 여러 특징은 생애 말년 『동국지리지』를 저술하는데 직접·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동국지리지』는 삼국 이전 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로 구분, 서술되어 있으나, 거기에 투영된 시대정신 내지 역사지리의식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조선전기 내지 그 후기 초까지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국지리지』에 투영된 역사의식의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면, 삼국이전 시대에서는 민족사 내지 민족문화의 주체적 생성 발전을 강조하려 하였고, 삼국시대에서는 예상되는 통일민족국가의 정통성 계승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서는 통일민족국가의 완성 내지 자주독립성을 저해하는 이

민족의 침략에 적극 대처할 방안 모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조선전기에서는 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체험을 통해 성리학적 가치체계의 한계와 그에 기반을 둔 『경국대전』적 제반 사회질서의 모순을 비판 극복하려 하였다. 조선후기 초에서는 중세적 가치체계의 한계와 사회질서의 모순으로 초래된 왜란과 그 이후의 역사적 시련에 대응할 역사학과 지리학적 현실대응방안으로서 근대지향적인 실학적 인식체계에 의한 역사지리서를 저술하려고 하였다.

요컨대, 한백겸은 왜란과 같은 국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예상되는 만주 여진의 침략에 대비할 현실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방안의 하나로 구상 제시한 것이 바로 『동국지리지』라는 역사지리서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과 지리학에 대한 종래의 성리학적 인식체계의 한계가 실학적 인식체계로 극복되면서 역사지리학은 새로운 학풍으로 生成되고, 또한 역사지리학은 실학사상이 확대 발전된 조선후기에 성장 발전하여 한국 근대 역사지리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恒齋 鄭宗榮과 草溪 鄭氏 關東派 門中에 관한 연구

오 영 교(연세대 교수)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조선후기 恒齋 선양사업의 전개 |
| 2. 草溪鄭氏의 原州入郷과 關東派의 성립 | 1) 草溪 鄭氏 동족마을의 구조와 운영 |
| 3. 鄭宗榮의 생애와 정치활동 | 2) 七峰書院에의 享祀 |
| | 3) 別廟의 건립과 운영 |
| | 5. 맺음말 |

1. 머리말

본 연구는 恒齋 鄭宗榮의 생애와 그 門中에 관한 연구이다. 鄭宗榮은 1513년(중종 8) 原州 東梨里에서 태어나 오랜 벼슬생활을 마치고 1589년(선조 22) 원주에서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草溪鄭氏 문중은 鄭宗榮의 묘소가 橫城 公根에 정해진 이후 31세에 이르도록 4백 여 년 동안 동족마을을 형성하며, 原州·橫城지역내 손꼽히는 명문으로 일컬어졌다.¹⁾

우선 草溪 鄭氏의 原州 入郷과 關東派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원주를 근거지로 하였던 鄭宗榮의 정치활동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草溪 鄭氏 문중과 동족마을을 중심으로 鄭宗榮을 비롯한 顯祖의 선양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鄭宗榮의 묘소가 橫城 內公根에 정해진 16세기말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초기 동족마을의 형성과정을 조사한다. 이어 顯祖의 위시를 위한 別廟·祠宇의 설립 및 七峰書院에의 配享 과정, 토지제·상속제·노비제 운영을 통한 경제구조와 祭儀의 집행, 宗約의 운영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鄭宗榮의 직계 후손인 鄭煥(17세), 鄭基廣(18세), 鄭錫文(19세), 鄭洙明(20세), 鄭八柱(21세)대에 작성된 家藏資料를 분석하여 서술할 것

1) 2002년 3월 현재 공근면 학담리에는 본적을 둔 草溪鄭氏의 同族이 많으나 주민등록부상으로는 적은 숫자만이 거주하고 있다. 학담1리의 경우 1반 3세대, 2반 4세대, 3반 6세대, 4반 2세대, 5반 2세대이며 학담 2리의 경우 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가곡리에는 2반 3세대, 3반 5세대, 4반 2세대가 살고 있으며(총 46세대), 別廟가 있는 공근리의 경우 2반에 9세대, 3반 1세대, 4반 4세대, 5반 4세대 6반 1세대 등 19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다.²⁾

定住意識이 고착된 三南지역 土族들의 삶과 달리 南漢江·北漢江 및 陸路를 통한 서울과의 빈번한 來往이 가능했던 중부지역 土族의 경우, 上京從仕와 落鄉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草溪鄭氏 宗孫들 역시 관직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즉시 돌아와 世居地에서 삶을 영위하고 선영 근처에 묘소를 설정하고 있다. 家藏資料에는 世居地 및 서울에 각각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던 이들의 행적과 면모가 거듭 드러난다. 이로 인해 본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鄉中公論’을 주도하거나 官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지역 유력 문중들의 勢과시 수단으로 활용하는 鄉權 개입에 관한 사례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草溪 鄭氏家は 鄭宗榮의 別廟와 14世 鄭允謙의 祠宇를 통해 마을 내 다른 姓氏에 대한 가문의 위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한편, 同族간의 결속과 하층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장치로서 宗約(宗規)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타 지역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는 先祖에 대한 제사의 집행과 묘지 관리, 동족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현대로 오면서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농토는 상속과 농지개혁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소멸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지역에서 손꼽히는 든든한 宗親會가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關東派 先親들에 대한 時祭가 거듭되어 橫城·原州는 물론 서울·경기와 강원도 관내에서 두루 참석한다. 宗約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져 문중의 중요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2. 草溪鄭氏의 原州入鄉과 關東派의 성립

草溪鄭氏의 先代 世系에 대해 살펴보겠다. 草溪鄭氏의 始祖 光儒侯 鄭倍傑은 高麗 顯宗 8년(1017) 乙科殿試 第一人으로 급제하고 文宗대 禮部尙書에 이르렀으며, 私塾을 열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十二公徒」의 하나인 弘文公徒를 이루었다. 弘文廣學推誠贊化功臣으로 開府儀同三司守太尉門下侍中上柱國光儒侯에 이르고 草溪君에 封하여졌고, 후손들은 草溪를 本貫으로 삼아 世系를 이어왔다.

草溪鄭氏는 內給仕公派, 千戶長公派, 大提學公派, 博士公派, 大司成公派의 大派를 형성하고 있다. 3세 福公의 장남 榮(4세)의 후손이 內給仕公派를 둘째 辛夫의 후손이 千戶長公派,

2) 이들 인물과 관련된 자료로는 『四留翁日記(鄭燦)』, 『金馬日錄』, 『燕石』, 『八川君日記(鄭其廣)』, 『玉湖記事』 등이 존재하며 그밖에 干支만이 표시된 일기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墓直奴婢安』·『耕家雜錄』·『喪葬記』·『別廟正堂重修記』·『祇謁錄』·『世蹟』 등의 자료와 戶口單子(准戶口)를 비롯한 榜目과 教旨, 契帖 등이 다수 남아있다. 본 자료들은 주도성 씨가 중심이 된 방계자료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객관성을 검증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마을에 관한 여타 자료가 不備하고 수집경로와 소재지역이 확실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추적과 설명이 가능한 유일한 고문서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본다.

3세 福卿의 후손이 大提學公派, 3세 福儒의 후손인 7세 沱의 후손이 博士公派, 동일한 7세 손이자 둘째인 太華의 후손이 大司成公派를 형성하였다.

그중 大提學公派는 僖의 아들 光祖(9세)대에 慶山宗派를 형성하였으며, 둘째 光繼의 子 補生과 英은 草溪 晉州派를 형성하였고, 셋째 修가 關東派를 형성하였다. 여기에서 關東派는 中派이며 다시 宗派, 山逸公派, 宣務郎公派, 慶州公派, 別坐公派, 醴泉公派, 松浦公派, 主簿公派, 進士公派, 義州公派, 弘儀公派의 小派로 구별된다.

僖(1)-貞簡公 文(2)- 福卿(3)-允耆(4)-(5)-(6)-祗侯 愼(7)-大提學 僖(8)-版圖判書 光繼(9)-修(10)-便(11)-興(12)-溫(13)-允謙(14)-淑(15)-宗榮(16)

13세 溫의 후손중 둘째 允諱의 후손은 義州公派, 14세 允謙의 둘째아들 炯의 후손들이 進士公派, 15세 淑의 둘째 아들 末榮의 후손들이 主簿公派를 형성하였다. 본격적인 小派의 형성은 16세 宗榮의 후손들로부터 기인된다.

따라서 오늘날 원주·횡성에 살고 있는 草溪鄭氏는 大提學公派(關東派)에 속하면서 다시 16세에서 17세에 걸쳐 小派가 나뉘어져 있는 셈이다. 본고는 關東派 중 宗派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원주의 入鄉祖인 11세 便(변:1364~1450)은 司宰副令 脩의 아들이고 고려조 通禮門 奉禮를 지냈고 贈職으로 禮賓寺正을 받았다. 그의 부인은 고려왕족인 順平君의 딸이었다. 고려왕조가 멸망하자 부인과 함께 당시 원주 땅이었던 干川으로 피난하여 스스로 ‘上丁’이라고 하고 李孝誠, 權淳과 더불어 3處士라 칭하며 고려 遺民으로서의 死生 契分을 맺었다. 家傳에 따르면 부인 왕씨가 종사의 소멸을 슬퍼하여 강에 투신하였고 비록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었지만 후손들은 干川 伽倻谷 便의 묘에서 더불어 묘제를 봉행하였다.³⁾

한편 便의 아들인 興은 원주향촌에서의 삶을 영위하다가 원주 本峴(鳳山洞)에 묻혔고, 대를 이은 후손들이 ‘干川爲貴地 本峴爲富地’라 일컬으며 草溪鄭氏 세거지로서의 원주의 위상을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13세 溫(1434년~1508년)은 世祖 년간에 登第出身하여, 成宗 년간에는 司憲府 監察을 지냈다.

14세 允謙(1463년~1530년)은 시호가 莊襄이며 家傳襲承으로 淸溪君에 封君(1519년)되었다. 1492년(성종 23) 武科에 급제한 후, 1506년의 中宗反正에 참여하여 그 공으로 秉忠奮義 靖國功臣에 녹훈되고 軍器寺僉正에 발탁되었다. 杆城郡守, 熊川府使, 忠淸道水軍節度使, 咸境道兵馬節度使, 全羅道水軍節度使를 역임하였다. 사후 兵曹判書에 추증되었다. 그의 신도비는 大提學 湖陰 鄭士龍이撰하였고 宗後孫 鄭載興이 글씨를 썼다.

3) 鄭元善, 『世蹟』上

3. 鄭宗榮의 생애와 정치활동

16세 鄭宗榮(1513년~1589년)의 호는 恒齋이며 시호는 靖憲이다. 부친은 현감 淑이며, 中宗 8년 11월16일 원주 東梨里(필자주:지금의 鳳山洞)에서 출생하였다. 慕齋 金安國의 문인으로 그에게서 직접 性理書를 받고 수학하였다.⁴⁾ 行狀에 따르면 安國이 별세하자 그의 부인을 모친처럼 섬기고 忌日을 지켜 祭需를 도와주었다고 전한다.

정종영은 28세인 中宗35년 生進兩試에 합격하고 31세인 中宗 38년에 殿試에 합격하여 承政院 正字로 임명된 후 4대에 걸친 47년간 벼슬을 역임한다. 그의 정치행적은 『朝鮮王朝實錄』에 100여 회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⁵⁾

鄭宗榮의 정치활동

1544년(中宗 39)	檢閱
1552년(明宗 7)	清白吏 錄選
1556년(明宗 11)	直提學
1560년(明宗 15)	江原道觀察使
1561년(明宗 16)	漢城左尹
1562년(明宗 17)	慶尙道觀察使
1563년(明宗 18)	平安道觀察使
1567년(明宗 22)	進香使(燕京)
1569년(宣祖 2)	修正 明朝實錄 編纂, 全羅道觀察使
1578년(宣祖 11)	右參贊
1582년(宣祖 15)	入耆社 ⁶⁾
1583년(宣祖 16)	勳職으로 家居

그는 戶曹와 工曹判書를 한 번씩, 兵曹와 吏曹判書를 두 번씩, 禮曹와 刑曹判書는 세 번씩 역임하는 등 중앙의 요직을 두루 지냈으나 東西分黨시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4) 문인으로 河西 金麟厚 眉庵 柳希春 僉樞 洪德演 三友堂 李文忠 曹守元 金漢仁 南溪 許忠吉 保庵 沈連源 梧亭 朴蘭 李塢 訓導 金器 鄭千齡 朴喜春 朴敢 尹棐 咸敬忠 李場 李增 韓曾道 李勤忠 沈銓 朴壽春 許汴 權殷 朴漢老 許淮 朴希年 朴希載 朴士豪 朴士傑 申漑 成好問 柳忠洪 朴恬 鄭沼東 尹玉 贊成 許磁 右議政 尹漑을 들고 있다.

5) 實錄에 관한 기사를 중심으로 한 鄭宗榮에 관한 발표로는 최상익교수의 「恒齋 鄭宗榮의人品과 思想」(강원의 일과 칠봉서원, 2001)이 참조된다.

6) 宣祖 15년 11월에 耆英宴에 참여한 七老臣은 判中樞 元混(89), 知中樞 姜遲(70), 判中樞 沈守慶(70), 知中樞 任說(76), 右議政 盧守愼(72)이다.

宗榮은 일찍부터 훌륭한 학자나 이름 높은 스승을 따라 학문을 익히는 데에 노력을 다하였고 옛 성현들의 서책을 늘 가까이 했다고 한다. 동문수학한 眉巖 柳希春은 “독서하는 것은 공이 늙어서 더욱 현저하였다.”고 평가했고, 南冥 曹植은 “단산 봉황이 높이 날아올랐으니 어찌 바람을 기다리랴.”라고 하였다. 領議政 東阜 李浚慶은 “正金美玉”으로 領議政 蘇齋 盧守愼은 “깎래야 깨기 어려운 쇠와 돌”로 비유하여 그의 높은 절개를 평가해주었다.⁷⁾

은퇴 후 원주 고향(萬鍾)에 돌아와 자연풍광을 즐기며 유람하고 歌酒娛樂을 즐기다 별세하였다. 이후 아들 穀이 鄭徹을 따라 南人에 일시 속하였다는 전언이 있다.

그는 死後 1638년(仁祖16) 七峰書院에 配享되었다. 1680년(肅宗36)에는 靖憲이라는 諡號를 받았으며, 1729년 후손들에 의해 창건된 別廟에 봉안되었다. 그의 神道碑는 大提學 畏齋 李端夏가 撰하였고 右承旨 丁昌壽가 글씨를 썼다.

동족마을의 형성과 관련하여 鄭宗榮은 후손들에게 2가지 遺言을 남겼다. 하나는 고향을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관직생활로 인해 외지를 떠돌아다니면 이미 8세 가까운 원주거주 조상들의 묘와 후손을 돌보는데 소홀해질 것을 염려한 것이다. 둘째는 ‘詩文을 탐하지 말라’는 것으로 柳夢寅의 「於干記」에 실려 있는데 그것은 유학자로서 시문을 즐기면 道學을 경솔히 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고, 한참 당쟁으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던 현실과도 관련하여 후손들이 시를 지어 士禍에 휩쓸릴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⁸⁾

4. 조선후기 恒齋 선양사업의 전개

1) 草溪 鄭氏 동족마을의 구조와 운영

(1) 17세기 동족마을의 성립

조선전기의 雙系(邊)적 친족체계는 17세기를 기점으로 점차 혼인형태에서 유교적 요소의 강화, 嫡長子 중심의 남녀차등상속, 長子단독봉사 등을 특징으로 하는 父系중심의 친족체제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가족제도상의 변화결과로 부계혈연집단인 문중이 결성·강화되었던 것이다. 조선

7) ‘公學務本實不尙詞華 或有吟詠無非發於性情也 早從碩師講學 最專一生 沈潛經訓手不釋卷 柳眉巖嘗稱公曰 讀書之功到老尤著蓋 眉巖少與公同學故云然 曹南冥嘗贈公詩有 丹鳳高飛不待風之 句蓋美避 遠權勢也 東阜相嘗以精金美玉喻公 蘇齋相亦謂公 有鐵石肝腸 卽此數公之評亦足以觀公矣’(李端夏撰, 右贊成鄭公神道碑銘并序)

8) 鄭宗榮의 저작은 아들 燾의 蘆幕에서 보관되었으나 1590년과 1607년의 失火와 兵亂으로 인해 소실되고 ‘次東軒韻’(庚申 夏 觀察使 江原)등의 시와 ‘平壤亞營壁上記’ 및 다수의 輓詞와 題詠이 전한다.

후기 동족마을의 형성 과정으로는 장기간의 均分 상속의 시행으로 인한 가산의 분할과 영세화, 양란 이후 기존의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체제의 이완과 새로운 향촌세력의 대두는 사족들로 하여금 문중의 결성과 강화라는 대응방식을 취하게 하였다.

그런데 女壻·外孫 및 여타 姓氏가 함께 거주하던 異姓 雜居의 마을이 동족마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 성씨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경제적 기반이란 토지와 노비의 소유로 나타나는 것이며, 사회적 기반은 관직이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조상(顯祖)을 가지는 것이다.

조선후기 동족마을은 17세기이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고, 18,19세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점차 보편적인 마을의 형태로 발달하게 하였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宗法적인 부계친족질서가 점차 확립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는데, 草溪鄭氏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橫城 公根(草堂)의 동족마을 형성은 17세 煥 이후 基廣·錫文·洙明·八柱대에 걸쳐 꾸준히 전개된다.

宗榮(16)-煥(17)-基廣(18)-錫文(19)-洙明(20)-八柱(21)-熙佐(22)-履重(23)-鎭魯(24)-鴻漸(25)-存和(26)-顯九(27)-昌時(28)-鎬駿(29)-瑾澈(30)-秉夏(31)

먼저 이들의 官歷과 함께 橫城의 세거지를 중심으로 한 생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세 煥(1544년~1616년)은 1567년(宣祖 즉위년)에 進士試에 합격하였다. 1581년(宣祖 14)에는 開城都事로 나아갔고 이어 水原判官, 金浦縣令을 역임하였다. 1592년(宣祖 25) 倭寇의 침입시 原州 鵠原山城으로 들어가 가족과 함께 士民을 인도하였다. 1593년 이후 高城郡守, 巡按御使, 司僕寺 僉正, 利川府使, 寧越郡守, 楊州牧使로 나갔으나 1607년(宣祖 40)에 낙향하여 관직에서 떠났다. 1616년(光海君 8)에 鄉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煥은 부친인 宗榮이 벼슬을 마치자 더불어 귀향하였다. 宗榮이 별세하자 묘 옆에서 居廬하였는데 尹義立에 따르면 '小齋를 三然이라 하고 3명의 동생과 더불어 지키며 宗族 중 居近者를 招致하고 同堂에서 聚會하여 즐겼다'라고 하였다.⁹⁾ 3년喪을 마친 후에도 모친을 봉양하며 묘소 옆에 살면서 땅을 개간하고 경작지를 만들어 식량을 조달하였다.

18세 基廣(1579년~1645년)은 1608년(光海君 즉위년)에 別試 文科에 等科하였고, 仁祖反正시 司憲府 持平의 벼슬을 거쳐 1630년(仁祖 8) 江原 觀察使로 나아갔다. 1638년 漢城府 左尹 兼 都摠府副摠管에 제수되었다. 1642년 鐵原府使로 나아가고 1645년 官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基廣은 나이 14세 때 壬辰倭亂을 당하여 70여 가구를 강릉으로 피난시키는데 참여하였다. 이후 문중 인들은 그를 가리켜 勇力·智謀·統率力의 소유자라고 평가하였다. 基廣은 關

9) 鄭元善, 「世蹟」上

東派 宗派의 中始祖로 일컬어 질만큼 횡성·원주 관내의 동족마을을 이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弟인 基成(1580~1662)은 壬亂으로 晩學하였고 주로 고향을 지키며 上京從士하는 동족들을 지원한 인물로 지칭되었다.¹⁰⁾

19世 錫文은 관직에 나가 都事를 지냈고, 胡亂시 南漢山城 전투에 참여하였다. 당시 원주의 儒士와 農民을 거느리고 원주 營將 權井吉과 합세하여 淸軍과 싸운 기록이 전한다.

橫城 草堂에서의 草溪鄭氏 마을이 형성된 것은 16世 宗榮의 묘가 조성된 후 17世 煥과 18世 基廣, 20世 洙明대 즉 17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였다. 이후 21世 八柱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草堂으로 移居하여 18세기 이후 지역 내 門中の 위상정립에 힘쓰게 된다.

漢城左尹의 벼슬을 역임한 18世 基廣이 1613년 江原觀察使를 지낸 뒤 橫城 草堂에 碧玉亭을 짓고 退休한 때부터 宗家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693년(肅宗19) 20世 洙明이 寧越府使에서 退官한 다음 본격적으로 개척하였다. 우선 茅屋을 짓고 淸流를引入하여 池塘을 굴착하고 花樹를 심었다. 즉 자연미에 인공미를 더한 전통적인 사대부가 건축조경을 보여준 곳이었다. 兩池 사이에 '獨樂堂'이라는 亭子를 조성하고 독서와 사색하는 곳으로 이용하였다. 兩池塘 앞에는 草屋 2,3칸이 있었고, 堂 뒷면 백여 步 거리에 瀑流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¹¹⁾

養子였던 洙明은 祖父 基廣의 嫡庶 남녀 13인, 生父 錫圭의 嫡庶 남녀 12인 등 本家와 生家의 후손들을 돌보면 수백 여 구의 衣食을 관장하였다. 심지어 庶姑庶妹의 자녀 등 친척들을 모두 보살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¹²⁾

한편 21世 八柱는 成均館 進士였으나 1725년 가족을 거느리고 서울에서 낙향하여 橫城 草堂으로 이전하였는데, 시냇물이 瀑布처럼 흐르는 연못의 동쪽에 3개의 기둥이 있는 정자를 세우고 본인의 별호인 '述齋'라는 현판을 내건 후 매일 서적을 읽으며 소요하였다.

八柱는 敦睦과 宗族保存에 유난히 힘쓴 인물이었다. 宗榮의 제사에 대해 '道學 德望'으로 祧遷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여 諸宗의 합의를 도출하고 公根에 別廟를 건축하며 옆의 土田을 경작하여 春秋祭享費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八柱는 벼슬을 역임하지 않은 대신하지 않은 대신 문중의 모든 기록물들과 절차 등을 정리한 문서를 남겨 草溪鄭氏 동족마을의 초석을 닦은 인물이다.

10) 그는 나이 80에 老職으로 折衝將軍에 봉직되었다. 詩文集 8권과 日錄 7편의 遺稿를 남겼다. 關東派 山逸公派의 中始祖가 된다.

11) 「三止齋遺稿抄」(熙佐) 등 수많은 후손들의 시 가운데 그 풍치가 서술되어 있다.

12) 당시 宗家の 生活과 官歷에 관해서는 錫文이 남긴 「府君日記」과 洙明의 「僉正公日記」, 25世 鴻漸이 남긴 「家狀日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18세기 동족마을의 운영

본 항에서는 동족마을의 성립 이후 구체적인 운영과정을 18세기 英正祖 시기의 家藏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士族 지배질서의 해체현상 속에서 동족마을을 이끌어 가는 기반은 경제력인 토지와 노비였다. 그러나 이조차도 분할상속으로 인해 거듭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재정리되고 있다. 초계 정씨 문중의 경우 准戶口, 奴婢案과 「墓田畵案(戊子量案 1768 英祖44년)」, 和會成文(分財記), 토지매매 明文의 분석을 통해 가문이 지니는 경제력의 구조와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가. 草溪 鄭氏家の 토지운영

동족마을을 이끌어 가는 草溪鄭氏의 경제력은 토지보유실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768년으로 추정되는 戊子量田시 토지대장에 原州소재 토지 현황이 기재되었고 橫城, 洪川, 坡州, 驪州 등지의 사례는 근거를 위한 기록으로 덧붙여져 있다.¹³⁾

草溪鄭氏 田畵 필지수(畵-田)

原州

好梅谷面 : 沙斤寺(0-4), 件谷(5-5), 水清洞(4-0), 慕華寺(1-0), 好音論伊(3-0), 隔洞(2-0), 高山內洞(2-0), 康莊伊(1-0), 東幕(1-0), 作洞(1-0), 玉山(0-13), 高洞(4-5), 高山(0-3), 介田(0-10), 밤바회(0-8), 方山田洞(0-8)

沙斤寺面 山底 : 三保谷(3-0), 漆木洞(5-0), 瑟來(4-14)

本部面 本峴 : 本峴(4-0), 枇杷洞(4-9)

楮田洞面 : 望宗(0-8), 望宗 통바기(7-0), 윤향이(6-0)

橫城

公根面 碧玉亭(6-32), 公根(1-0), 國재골(1-0), 東幕골(7-6), 別廟堡(2-2), 강현동(4-7), 蒼峰里(5-4), 城洞里(0-5), 장지원(6-0)

甲川面 馬日員(8-18)

洪川

劔倚山 向和堡(6-0), 道探洞(1-0)

坡州

紫谷面 都監洞(3-1)

13) 「耕稼雜錄」으로 명명됨

이상의 토지는 原州 入鄕祖인 11세 便이후 후손들의 묘자리와 세거지, 상속으로 이어받은 곳에 소재하고 있다. 주요 인물들의 묘자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원주 本部面 本峴(본재)에는 興(12)·淑(15)·存和(26), 옥산리 증골에는 溫(13)·允謙(14)·錫文(19)·熙佐(22), 광격에는 燾(17)·基廣(18), 무상골에는 八柱(21)·鎭魯(24), 만중에는 宗榮의 配 동래 정씨의 묘가 소재한다. 횡성 공근에는 宗榮(16)·洙明(20)·履重(23)·鴻漸(25)·昌時(28)·鎬駿(29)의 묘가 있다. 특히 광격리 일대에는 다수의 草溪鄭氏家 묘비 및 신도비가 소재한다. 옥산리 돌머루 마을에는 草溪鄭氏들이 床石을 배로 실어왔는데 하중으로 인해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쌓아두었다는 傳言이 있을 정도이다.¹⁴⁾ 만중은 당시 저전동면 지역으로 鄭宗榮이 낙향 후 머물렀던 舊垆가 있었다.

한편 橫城의 경우 宗家가 있는 碧玉亭과 鄭宗榮의 別廟가 소재한 公根, 公須位畝이 소재한 동막골(붕우재 동쪽의 골짜기) 및 국제골(국제골, 국자골)과 창봉리, 성동리 장지원리 및 甲川面의 馬日院(里)이 존재한다. 파주 자곡면의 경우 鄭宗榮의 配인 文化柳氏의 墓畝이 소재하였다.

먼저 戊子年(1768) 草溪鄭氏家の 조세규모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戊子(1768년) 量案에 나타난 鄭氏家の 조세규모 (負·束)

지역	稻(畓)	雜穀(田)	합
(원주)			
호매곡면	155-1	231-4	386-5
사근사면 산저	58-7	32-3	91-0
본부면 본현	40-4	24-7	65-1
저전동면 二所 망종	77-8	56-9	134-7
(횡성)			
공근면	134-9	261-7	396-6
갑천면 마일원	35-0	303-5	338-5
(기타)			
홍천 검기산	67-2		67-2
파주 자곡면 도감동	12-0	5-2	17-2
도합	581-1	915-7	1496-8

14) 원주문화원, 1976. 『原州·原城향토지』 참조

다음으로 조세량을 근거로 추정한 토지 소유규모는 <표2>와 같다.

<표2> 鄭氏家の 소유전답규모(추정)(단위:두락)¹⁵⁾

지 역	稻(畓)	雜穀(田)	합
(원주)			
호매곡면	182.5	544.5	727
사근사면 산저	69.6	76	145.6
본부면 본현	42	84	126
저전동면 이소 망종	91.5	133.9	225.4
(횡성)			
공근면	158.7	615.8	774.5
갑천면 마일원	41.2	96.9	138.1
(기타)			
홍천 검기산	79	158	237
파주 자곡면 도감동	10	20	30
도 합	674.5	1729.1	2403.6

이와 같이 量案에만 수록된 草溪鄭氏가의 토지소유 규모는 畓 674.5斗落, 田 1,729.1斗落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位田과 相續 田畓이 빠져있는 규모이므로 본래 草溪鄭氏家が 지니는 토지 소유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본 草溪鄭氏 자료는 戊子年 原州·橫城지역 量案의 외지에 소재한 토지를 문중에서 참고하기 위해 追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상속제의 전개와 경제구조

宗法이란 ‘大宗·小宗之法’ 혹은 ‘宗子法’을 약칭하는 말이다. ‘대종·소종지법’은 하나의 宗家(大宗)를 중심으로 여러 방계 친족(小宗)들을 결속시키는 독특한 친족 편제의 원리이다.

15) 추정방법-전답규모 상정

- ① 원주 호매곡면과 사근사면, 본부면, 저전동면의 경우 8.5束=1斗落으로 상정함. 그 중 본부면과 망종은 1負=1斗落이나 대개의 지역은 0.85:1의 비율로 계산 됨.
- ② 斗落(時落, 落種)이 명기된 경우는 斗落數를 그대로 사용
- ③ 田의 경우 생산력-畓:田=200:130으로 추정
규모- 畓:田=1:2로 추정, 동일한 결부의 경우 전을 답의 2배로 추정.
특히 ‘日耕’의 노동량 추정치가 부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임
- ④ 18세기 후반 논 1斗落은 100평, 밭은 50평에 이름
- ⑤ 1결은 30~40斗落
- ⑥ 英祖년간 대대적으로 「陳田下諒成冊」이 작성
- ⑦ 홍천과 파주 지역은 조세납부와 상관없이 斗落 수가 기록되어 있음.

‘宗子法’이란 大宗이나 小宗의 가계를 嫡長子가 계승토록 하는 일종의 長子 相續法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立後제도가 만연하였다. 조선시대 宗法이 보편화된 것은 『家禮』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급 시행되고 유교적 의례의 전범으로 보편화하면서 그 禮俗이 생활화한데 따른 것이다.¹⁶⁾

16,17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부계중심의 친족조직은 세대가 내려옴에 따라 수적인 증가에 따른 문중 조직의 확대와 동시에, 내부에서 소규모 단위로 분화하는 과정을 동시에 겪게되었다. 이는 大宗을 중심으로 다수의 小宗, 族派가 생성되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小宗의 형성은 4대 奉祀에 있어서 代盡하는 조상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奉祭祀 집단이 분화되는 데에서 주요 원인이 있다고 설명되어 진다.¹⁷⁾

조선전기 『經國大典』에 규정된 男女均分 상속관행은 17세기 이후 가족제도의 전반적 변화, 즉 父系 중심의 친족구조가 성립됨에 따라 嫡長子 중심의 남녀 차등 상속으로 변화하였다.

재산소유의 영세화는 兩亂이후 사회·경제적 상황과 연관하여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상황은 양반사족들로 하여금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결국 재산의 남녀차등 상속은 심화되었고, 특히 우선적으로 종가 중심의 재산 집적 및 유지를 도모하였다. 당시 別給을 통한 재산상속이 宗孫에게 집중되었던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이후 제사상속이 長子단독봉사로 전환됨에 따라 分財記상의 奉祀條 재산도 증가되었을 것이다.¹⁸⁾

이상의 사실을 반영한 草溪鄭氏家の 分財記는 18세 基廣대에 정리된 4점이 전한다.

「和會成文」 1631년 8월 16일

「新奴婢成文」 1627년 7월 8일

「趙氏邊文記」 1617년 8월 25일, 1631년 5월 20일

「柳氏邊文記」는 1621년 12월 10일

이상은 父邊과 母邊, 그리고 두 妻의 妻邊의 재산상속 내용이 정리된 것인데, 이를 통해 17세기 초반 鄭氏家の 토지 및 노비소유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631년(仁祖9) 8월 16일에 작성된 「和會成文」에 따르면 1615년 10월 8일 燾이 별세한 후 父邊과 母邊의 노비·전답에 대한 ‘依法平均分給’을 강조하고 있다.¹⁹⁾

16) 이영춘, 1995. 「宗法の 원리와 한국사회에서의 전통」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46, 57면

17) 김현영, 1999. 「호남지방 고문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가족과 친족」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279~280면

18) 이수진, 1991. 「조선전기의 사회변동과 상속제도」 『역사학보』 129

19) 財主의 死後의 分財, 즉 부모가 죽고 난 후 자식들이 모여 재산을 나누는 것을 和會라고 한다. 화회할 때 분재 대상자가 한 곳에 모여야 하고, 화회 문기상에 반드시 이들의 서명이 필요했던 것은 법률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동 문건의 말미에 9인의

당시 9인은 동래 정씨 소생의 1녀(進士 丁好敬), 2녀(貞陵參奉 韓復胤), 남양 홍씨 소생의 3남 基廣 4남 基成 5남 基平 6녀(權宗吉) 7녀(尹義立) 8녀(進士 李應耆) 9남 基豐이었다. 이중 母邊은 남양 홍씨 소생의 同腹인 3남 基廣을 비롯한 7인의 분깃이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祖業田民은 조상의 文記에 따라 시행하되, 血孫 이외에 타인에게는 결코 주지 않으며 이 원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⁰⁾

특히 奴婢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身故奴婢를 분깃하지 않았으면 遺漏奴婢로 充給할 것과 遺漏奴婢와 逃亡奴婢들을 推尋하여 분깃하되 陳告者는 『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논상하고 몰래 使喚한 奴婢의 경우 분깃시 허급을 허용하여 분란이 없도록 할 것 등을 합의하였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兩家에서 주는 新奴婢는 이미 존재하는 文記에 따라 시행하되 절대 변경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新奴婢는 주로 자녀의 혼인시 주어지는 것이므로 분재 시기는 각기 다르나 그 양은 일정하다. 이들 新奴婢는 대개 文記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分財시에 기록한 것이다.

<표5> 1631년 和會成文의 分給재산 내역(田·民)

	구분	토 지		奴婢	비고
		畓(斗落)	田(斗落)		
奉祀條	父邊	17두락	27두락+16부8속		
	母邊	9두락			
1녀(정호경)	부변	66두락+11부1속	45두락	노2	
2녀(한복유)	부변	62두락	48두락	노2 비2	
3남 기광	부변	67두락+27부8속	22두락	노2	원주 牆岩面畓 陸庫
	모변	15두락+11부1속	5부5속	노2	不知其數두락 추가
4남 기성	부변	40두락+47부7속	58두락	노1 비1	
	모변	9두락+6부5속	31부2속+1.5日耕	노2	
5남 기평	부변	66두락	44두락	노1 비1	
	모변	15두락+21부	20부2속	노1 비1	
6녀(권종길)	부변	69두락+18부	46두락	노1 비1	
	모변	14두락+17부	4부7속	비2	
7녀(윤의립)	부변	52두락+13부6속	30두락	노1 비1	
	모변	15두락+11부1속	16부5속	노2	
8녀(이응기)	부변	45두락	49두락	노1 비1	
	모변	15두락+21부5속	15부4속	노1 비1	
9남 기풍	부변	66두락+17부	49두락	노1 비1	
	모변	15두락+17부	6부5속	노1 비1	
도합		657두락+240부4속 +원주장암면답	418두락+116부8속 +1.5日耕	노21 비13	

서명이 수록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화회분깃이란 ‘자식들이 함께 모여 쌍방 동의에 의해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누어 갖는 분재행위’를 일컫는다.

20) 墓直墓田奉祀條段 一從 先世文記立議 施行事

三韓祖業孫外與他 不得亦 祖上遺法是置 遵守勿爲齊(「和會成文」 1631년 8월 16일)

본 分財記는 조선전기의 평균 분깃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조선후기의 承重者·長男 위주의 상속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奉祀條는 '先世立議'를 따를 것을 강조하여 長子·長孫에게 집중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17세 燾의 재산은 父邊의 경우 원주와 횡성의 근거지와 양주, 연안, 광주, 장흥, 연산, 남원에 소재하며, 母邊의 경우 보성, 광주 등에 위치한다. 奉祀條의 경우 母邊의 경우 원주 만종리에 위치한다.

奉祀條와 長男분깃을 제외한 많은 田土·奴婢의 경우 나머지 8남매에게 고루 분배됨으로써 宗家재산의 영세화는 진행되고 있다.

<표6> 1631년 奉祀條와 基廣의 相續내역

구분	분 급 내 역
奉祀條	楊州: 蘆原伏 鄭端川宅 賈得畝 5두락 同員畝 1두락 원주: 禾里畝 11두락, 同員田 4두락 梨里田 8두락 횡성: 公根 馬谷田 15두락 연산: 安在達 田 1日畝 16卜8束 *母邊: 원주 萬宗沙汰底畝 9두락
3男 (基廣)	나주奴 2구 원주: 大代 富字畝 7두락, 塙岩面畝 陸庫 不知其數 횡성: 猪洞畝 7두락, 同處 尹·朴田 10두락, 麻阿實李率田 2두락, 冷泉洞 田 20두락 남원: 西又畝 4두락, 同處 西畝 5두락 연안: 南面 徐洞畝 10두락, 다사물답 20두락 27부 8속 양주: 芦原 南崇智內 分畝 4두락 *母邊: 奴1口, 廣州奴 1口 衿川非知畝 13두락 論非義字畝 25卜내 11卜 1束 論月畝 2두락, 廣州 拘迂里 洪字田 5卜5束

여기에서 보듯 奉祀條에는 父邊의 경우 양주 蘆原伏와 원주 禾里·梨里田, 횡성 公根, 연안, 母邊의 경우 만종 등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근거지의 토지가 해당된다. 즉 타 사례처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 가운데 주요 세거지역의 토지는 宗孫으로만 전달될 수 있게 한 예이다.

다. 奴婢制 운영

草溪鄭氏 奴婢案은 21세 八柱代에 작성된 것으로 戶口單子·准戶口와 수 차례에 걸친 分

財記·新奴婢案을 참조한 것이다. 관련 년도는 1627년, 1631년, 1647년, 1702년, 1732년, 1737년이다.

宗榮의 前配인 坡州 在日面의 文化 柳氏 묘의 경우 17세 煥의 和解시 定出하지 않은 채 墓奴의 身貢을 祭需에 지급해주었으나 21세 八柱 대에 이르러 畝11斗落, 田1日耕의 토지와 墓奴(夢思)를 지급하였다.²¹⁾

允謙의 墓直奴婢는 1584년(宣祖17) 別坐 鄭淡이 원납하여 奴3口, 婢3口를 정했다가 1587년 丁亥和解시 기록하였다.

<표7> 草溪鄭氏 奉祀條 奴婢 현황(17세말)

奉祀대상	墓地 소재지	奉祀奴婢	定出사실
祖父母(19세 錫文)	원주 증골	노1 비2	1702년 和會
父母(20세 洙明)	횡성 공근	노1 비2	
八溪君(16세 宗榮)	횡성 공근	노12 비6	1601년(奉祀條+墓直)
祖母 東來鄭氏	원주 만중	노6 비3	1619년
莊襄公(14세 允謙)	원주 증골	노3 비3	1584년 出, 1587년 更錄
淸成君(17세 煥)	원주 광격	비2	1631년
八川君(18세 基廣)	원주 광격	노2 비1	1647년(妻邊 노1,비1포함)

이외에도 金川(奴3, 婢3), 坡州 在日面 都監洞 柳氏墓(奴3 婢4), 江陵 安義, 나주, 익산 東面, 장흥 古邑, 해남, 남원, 원주, 무장 下龍伏面 禮洞里, 고창, 영남 등 각 지역의 奴婢들의 명이 기록되고 부모의 출처와 함께 최소 3대에 걸쳐 추가로 기록되고 있다.

<표8> 宗家(本宗) 奉祀·墓直 奴婢(21世 鄭八柱 작성)

지역	奴婢현황		비 고
	奴	婢	
원주	66	84	공근·갑천 포함
횡성	45	52	
흥천	10	14	
강릉	10	7	
양양	44	5	안의 포함
영남	40	47	郡內, 二里助邑里 포함
김천	26	26	안음·거창 포함
파주	8	11	在日面 都監洞 柳氏墓下
나주	62	34	
익산	10	10	
장흥	27	15	古邑 포함
해남	4	8	
남원	3	3	
무장	24	16	
고창	17	22	下龍伏面 道禮洞里 포함
도합	396	354	

21) 鄭元善, 『世蹟』 下

한편 宗孫 가문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구조와 거주호의 실태는 戶口單子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표9>)

<표9> 草溪鄭氏 戶口單子 목록

작성연도	戶主	주소	率居가족	奴婢數	
1759년(영조35)	幼學 정이중	공근면 벽옥정리	弟2 夫婦, 子	236口	
1796년(정조20)	幼學 정홍점	공근면 초원리	弟3 夫婦, 子1 夫婦, 妹婿2 夫婦		
1865년(고종2)	幼學 정현구	공근면 초당리	子2 夫婦	83口	
1874년(고종11)	幼學 정창시	공근면 초원리	弟1 夫婦		2통 3호
1886년(고종23)	進士 정창시	공근면 초원리	弟1夫婦, 子1 夫婦	39口	3통 1호

1732년(英祖 8) 당시 「墓直奴婢案」에는 奴150口, 婢가 149口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²²⁾ 이후의 기록인 戶口單子에 따르면 1759년 현재 宗孫댁에서 관장하는 奴婢는 率居奴婢(奴11, 婢16), 外方奴婢로서 橫城(奴31, 婢22) 原州(奴25 婢35), 洪川(奴1 婢7), 忠州(婢1), 堤川(奴2), 驪州(奴1 婢2), 砥平(奴1), 陽州(奴2 婢2), 坡州(奴1 婢2), 水原(奴1 婢2), 江陵(奴8 婢7), 襄陽(奴5 婢4), 尙州(婢3), 永川(奴1 婢2), 羅州(奴1), 逃亡奴婢(奴26 婢12)에 이른다. 가히 거대한 가계와 노동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25세 鴻漸대에는 술거하는 직계가족이 13명에 이르고 率居奴婢 외에 원주·여주·수원·통진·강릉·상주·남양·청안 지역에 外居奴婢가 존재한다. 顯九대에는 率居奴婢(奴21, 婢21)와 外居奴婢로서 원주는 奴10·婢15, 양주는 奴3·婢2, 강릉은 奴1·婢5, 여주는 奴2·婢1, 지평은 奴2口로 나타난다.

18세기 중엽의 236口에서 19세기 중엽에는 83口로 현격히 감소되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39口로 급감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草溪鄭氏는 이상의 土地 및 奴婢制 운영을 통해 종파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동족마을에서의 위상을 지닐 수 있었다.

2) 七峰書院에의 享祀

조선시대 원주는 小科와 大科의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이었다.²³⁾ 이는 원주가 지닌 학문의 전통과 500년 監營소재지였던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육환경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22) 「墓直奴婢案」, 攷正 壬子所錄

23) 최진옥, 1998. 「조선시대 생원 진사 연구」(집문당)

조선후기 각 지역에서는 祠廟·精舍 등으로 출발하여 중간에 서원으로 승격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원주에서도 祠宇가 먼저 건립되어 先賢奉祀와 지역 훈도 들을 가르치다가 이후 본격적인 書院의 건립에 눈을 돌린 사례가 나타난다.

서원 건립을 위해서는 향촌사회에서 士族들의 기반이 확고하고 여론(鄉中公論)의 일치가 선행되어야만 했다. 또한 경제력과 학문을 중시하는 기풍이 중요하였고 더불어 奉祀의 대상이 되는 훌륭한 학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했다. 원주는 紆谷 元天錫 같은 節義의 인물을 배출한 이래 士風이 크게 진작되었다. 17세기 전반의 원주에는 직접 거주하거나 여러 연고를 가진 유명한 학자와 문인, 관료가 다수 있었다. 鄭宗榮·韓百謙을 비롯해서 觀雪 許厚, 愚潭 丁時翰, 四寒 金昌一, 東溟 金世濂 등이 원주와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에 자극을 주어 학문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역 내 서원의 건립은 처음에는 祠廟·精舍 등으로 출발하여 중간에 서원으로 승격시키는 예가 많았다. 이를 반영하듯 원주에서도 祠宇가 건립되어 先賢奉祀와 지역 훈도 들의 교육이 수행되다가 다른 지역에서처럼 서원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원주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은 七峰書院이다. 光海君 4년에 祠宇를 창건하고 13년 뒤인 1624년(仁祖 24)에 元天錫의 位版을 봉안하였다.

「七峰書院事蹟」에 따르면 ‘士林이 本鄉 先賢에 대한 尊慕의 뜻을 合議’하여 1612년(光海君 4)에 七峰書院(祠宇)을 창건하였고 1624년(仁祖 2) 元天錫을 主壁에 봉안하고 1638년(仁祖 16) 東壁에 鄭宗榮, 西壁에 久菴 韓百謙을 追享함으로써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1703년(肅宗 29) 10월에 觀瀾 元昊를 合享하여 유력 書院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²⁴⁾

조선의 從祀制는 대개 중국의 제도를 채용한 것으로서 1인만 祭享하는 경우는 獨享이 되고 2인 이상일 때는 位次에 따라 主享, 竝享(聯享), 配享(從享) 등으로 구분하고, 다시 제향의 시기에 따라 創建시 奉安, 追鄉(合享), 追配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院祠의 제향인물의 설정, 특히 主享의 설정은 그 院祠의 건립자가 어떤 학자의 문인인지 혹은 어떤 名臣의 후예인지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가문이나 학파, 또는 지방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忠節人 등을 내세워 主享으로 모시게 된다. 이렇게 해서 主享이 결정되면 다시 그 고을 또는 외부인 중에서 건립자 집단의 존경을 받

24) 紆谷 元天錫은 당시 원주를 대표할 만한 인물로서 高麗王朝에 節義를 다한 인물로 평가되며, 강원도 안무사를 역임한 久菴 韓百謙은 『東國地理志』의 저자이며 후손들이 원주(노림리)에 동족마을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1690년(肅宗 29) 10월 7일 생육신의 한 사람인 元昊를 七峰書院에 배향하기를 청하는 상소가 生員 元鈺과 進士 尹億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 觀瀾 元昊는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이 가시화되자 집현전 직제학의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원주에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端宗이 영월에 유배되자 영월에 옮겨 端宗을 사모하고 3년간 侍慕하다가 재차 원주(남송)에 귀향한 인물이었다.

을 만한 인물이 선정, 配享된다.

당시 七峰書院 운영자들이 서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賜額을 위한 노력과 함께 끊임없이 請額疏를 올리고있는 점이 눈에 띈다. 賜額이라 함은 서원의 건립에 따른 국가적 공인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賜額書院의 제향 인물은 가문의 興起人이거나 국가의 유공자라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들이 건립한 서원과 사우가 이러한 기준에 일치된다고 하여 모두다 賜額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賜額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건립세력이 중앙정계와 밀접한 유대를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賜額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었다. 지역 유림들이 모여 賜額을 요청하는 상소를 작성하고, 유생을 서울에 보내 상소를 나라에 내고, 또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성균관과 고위 관료들에게 청탁 인사를 다니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었다. 賜額의 요청은 한, 두 번의 상소와 청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몇 십 년 동안 여러 차례의 시도를 거쳐 겨우 사액서원이 된 사례도 있었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 賜額을 받는다면 이는 무형의 자산이 되는 것이었다. 중앙의 당파는 儒林들의 여론을 이용하고 정치적 배경을 튼튼히 하려고 한 점에서 賜額書院에 대한 배려를 이전보다 한층 더 각별히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賜額書院에 대한 지방관의 협조적 태도와 물질적 지원이 계속되고, 賜額書院으로서의 위상이 유림사회와 지역사회에 더욱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書院에 관여하는 유림들과 후손들도 그만큼 사회적 위세를 크게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顯宗 4년(1663) 4월에 進士 韓用明이 疏頭, 判書 權大載가 製疏하여 請額 上訴를 올렸다.

강원도 진사 한용명 등이 상소하기를, “고려 진사 원천석은 학문이 정심하고 도덕이 순수했는데, 좋지 못한 때를 만난 탓으로 치악산에 은거해 있으면서도 전혀 답답해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다시는 섬기지 않을 뜻을 굳혔습니다. 그러다가 고려조의 운세가 마지막을 고하고 진정한 인주가 혁명을 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우리의 고절을 힘쓰고 서산의 청풍을 멀리 끌어당겨 유정함을 끝내 보전하면서 이를 잊지 않겠다고 길이 맹세하였으니, 천석과 같은 자아말로 이른 바 만고의 강상이 되고 백세의 사표가 되는 자라 하겠습니까. 따라서 그는 실로 정몽주나 길재와 함께 아름다움을 짝하고 향기를 같이 하는 존재로서 마치 은나라에 세 사람의 인자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격이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태종대왕께서 감반의 구은이 있다고 하여 거듭 은총을 가하시고, 산 입구에까지 가시어 그의 아들 형을 기천의 수령으로 임명하시으로써 그를 봉양할 여지를 마련해주기까지 하면서도 끝내 작록은 가하지 않아 그의 뜻을 이루어주셨으니, 천석의 고상한 풍도가 이에서 더욱 드러났다 하겠습니까. 지난 갑자년에 본주의 선비들이 본주 북쪽 칠봉 아래에 서원을 세워 그를 경모하는 정성을 부쳤는데, 아직까지 사액을 늦추시어 은광이 빛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성조의 흠전이요, 선비들이 실망하는 바라 하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아름다운 편액을 내려주셔서 향사를 영광되게 해 주소서”²⁵⁾

그러나 이때는 禮曹의 防啓로 이루지지 않았다.

재차 顯宗 5년(1664) 3월 生員 崔東老가 疏頭가 되어, 顯宗 14년(1673) 2월에는 進士 韓佐明이 疏頭가 되고 左相 李端夏가 製疏하여 재차 請額하였다. 드디어 顯宗 14년(1673) 12월 16일에 국왕의 특명으로 賜額하고 賜額致祭文을 별지에 첨부하여 관료를 七峰書院에 파견하였다.

참고로 賜額致祭文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왕은 신하 예조 정랑 송정렴을 보내어 원양도 원주목 고려 국자진사 원천석의 영전에 제사 받드노라. 백성들이 고려의 덕을 싫어하므로 하느님이 성종에게 계시하사 어두움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매, 만물이 다 그것을 함께 보았다. 그러나 특수한 사람은 홀로 가면서 돌아보지 않고 치악산에 숨어 영원히 고반을 맹세하였다.

삼가 생각하면 현묘계선 그 생각이 감반에 간절하셨으므로, 이미 역마를 보내 부르셨고, 도화란을 굽히었으나 굳은 그 뜻은 마침내 몸을 피한지라, 필부의 뜻을 빼앗기 어렵기에 예를 갖춰 겸손하사 높은 절개를 이룩하게 하셨다. 서산에서 고사리 캔 것이 주나라 덕에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 동강에 낚시를 드리운 것은 실로 한 나라 풍속을 붙든 것이니, 그 성취한 것을 살펴 보건대 어찌 미리 수양한 것이 없었으랴. 젊어서 학문을 좋아했는데 장성해선 더욱 힘써 닦고 연구를 거듭하여 의리를 깊이 깨달았다. 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자 쌓아 둔 포부를 시험하지 못했고, 잠깐 국자에 머물렀지만 그것은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세상을 피해 살면서도 고민이 없었으니 그 일을 높이 평가할 만하고 풍성이 미치는 곳에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흥기하게 하였다.

이에 예관을 보내어 삼가 맑은 술잔을 올리노니 이 몇 글자의 빛나는 액자는 만고의 자랑스런 법이 될 것이다.²⁶⁾

25) 江原道進士韓用明等上疏 以爲高麗進士元天錫 學問精深道德純粹 遭時不淑隱居於雉岳山 秉無悶之心堅不事之志 及其麗運告訖 眞主革命益勵栗里高節 遠挹西山清風 終保幽貞永矢不諛 則若天錫者眞所謂萬古綱常 百世師表者也 實與鄭夢周吉再並美而齊芳若殷之有三仁也 惟我 太宗大王以甘盤舊恩 存家寵眷降臨山扃 至於命其子洞爲基川守 以爲榮養之地 而終不以爵祿加之以成其志 天錫高尚之風於此益著矣 往在甲子本州多士 立院於州北七峯之下 以寓景慕之誠 而尙稽揭額未貴恩光 誠 聖朝之欠典 多士之缺望者也 願 賜以美額以榮享祀 疏下禮曹防啓事遂寢 天錫隱居不仕與李穡諸人素善 我 太宗嘗從學 及卽位屢徵不起 太宗親枉其廬 天錫逃不肯見 太宗呼舊時嬖婢爲之賞賚 且官其子 天錫有手稿六卷書 麗末及革世時事甚悉糊其卷 而題其表曰非賢子孫莫開 今其書尙在 而逸其兩卷云(『顯宗實錄』 顯宗4년 4월 甲子)

26) 賜額致祭文

世次癸丑十二月十六日 國王 遣臣禮曹正郎宋挺濂 諭祭于原襄道原州牧 故 高麗國子進士元天錫 右贊成鄭宗榮 贈領議政韓百謙之靈曰 民厭麗德 天 啓聖祖 一掃昏穢 萬物咸覩 展如之人 獨行不顧 隱居雉嶽 永矢考槃 恭惟 獻廟 念切甘盤 旣勤躬召 亦屈和鑾 志堅踰垣 匹夫難奪 能以禮下 俾遂高節 採薇西山 何損周德 垂釣桐江 實扶漢俗 究厥所就 豈無預養 少也好學 長益勉強 優游涵泳 深諳義理 遭時濁亂 蘊而莫試 暫遊國子 非爲筮仕 遜世無悶

七峰書院 당시 春秋祭享에는 耘谷과 久庵에 대한 축문과 함께 ‘恒齋鄭先生 學究性理 德冠儒林 恒存敬畏 表裏交修卷 而歸之 不顯其光 高山景行 久而彌仰合膺禮陟 以配先哲’이라는 축문이 낭독되었다.²⁷⁾

차후 肅宗 29년 10월 7일 肅宗이 端宗의 廟號를 정하여 解冤한 때에 맞추어 元昊를 선양하고 추가로 七峰書院에 合享하게 했다. 당시의 주장은 耘谷이 太宗을 피한 것과 觀瀾이 世祖의 부름을 거부한 것을 동일하게 높은 節義로 평가하였다. 元昊의 奉安文에도 이상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²⁸⁾

鄭宗榮을 七峰書院에 배향한 이후 草溪 鄭氏 문중은 顯祖의 삶을 드러내고 여러 동족의 단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마을 내 他性貫 출신자들에 대한 권위를 보여주고자 했다.

3) 別廟의 건립과 운영

(1) 別廟의 건립과정

草堂의 草溪鄭氏 동족마을은 顯祖를 내세워 마을을 장악한 경우로 볼 수 있다. 鄭允謙의 不祧廟와 鄭宗榮의 別廟가 그것이다.

우선 鄭允謙의 不祧廟를 살펴보겠다. 不祧廟란 不遷之位의 對象이 되는 神主를 두는 祠堂이다. 본래 忌祭祀에서 墓祭祀로 넘기는 4대 항렬의 사람이 죽는 代盡이 발생하면 4대

高尚其事 風聲所及 異代興起

八八溪鄭君 天資英粹 曾在齠齡 觀者歎異 研窮聖學 早登師門 內確外端 金精玉溫 國選廉謹 僉舉姓名 宮壺天樂 曠世輝榮 藥臣秉國 勢若煮手 朝臣奔走 猶恐或後 超然若洗 獨恥媚諂 頽波砥柱 疾風勁草 位躋崇班 終保雅操 履滿知足 引年懸車 江樓 賜錢 進退皆華並美二疏 前後孰多

侍侍郎韓子 行潔氣和 年纔弱冠 慨然求道 潛心義易 洞澈玄奧 中罹文網 禍將不測 天護善良 乃謫有北 歲在龍蛇 時事艱危 邊氓煽亂 遂膺島夷 官軍魚散 列邑風靡 一二人同 灑泣舊義 元惡授首 一方以平 世用武夫 功出書生 受知 穆陵 屢加 恩擢 謝事昏朝 居貞蘊櫝 念茲賢喆 接武于原 譬馬多冀 如玉出崑 所操雖殊 均播遺芬 瞻彼七峰 章甫如雲

茲遣禮官 敬奠洞酌 數字華額 萬古矜式

知製教 閔宗道 製

27) 耘谷元先生 伏以學傳洙泗 道屯首陽 一部詩史 萬古綱常 斯文之享 永世無彊 謹以牲幣粢盛庶品 式陳明薦 恒齋鄭先生 學究性理 德冠儒林 恒存敬畏 表裏交修卷 而歸之 不顯其光 高山景行 久而彌仰合膺禮陟 以配先哲 久庵韓先生 學探閭奧 行篤孝友 觀玩萬變 所造彌深丘園 晚節其樂之真 斯文柱 茲景仰彌久 宜配先哲 永世經享(「春秋祭享 祝文」)

28) 學著望 進退惟義 獨扶綱常所立卓爾 遺風凜然 聞者激昂 表厥宅里 褒典孔彰式遵 朝命躋享七峰仰惟耘谷百世攸宗堂堂 大節前後同符 陟降有靈有德不孤 一體祔祀 苾芬惟馨 千古佑啓 惠我光明(奉安文 甲申年, 今종30)

이상이 되는 祖上의 神主는 祠堂에서 꺼내 묻어야 하지만 나라에 功勳이 있는 사람의 신주는 왕의 허락을 받아 옮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不遷位가 된 神主는 처음에는 묘 밑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宗家근처에 祠堂을 지어둘 수 있게 됨으로써 不祧廟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不祧廟는 본래 국가의 공인절차를 받아야 하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地方儒林의 공의에 의해서도 정해지게 되었다.

奉祀孫이자 長曾孫 17世 煥이 別世하여 3대 奉祀가 끝난 후 1615년 長玄孫 基廣대부터 不祧廟를 창건하여 永世奉祀하는 예법을 시행하고 있다. 基廣대에 원주 望鍾里에 있던 宗家は 이후 橫城 草堂으로 옮겨졌고 본 不祧廟는 1694년에 宗家 내에 重建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鄭宗榮의 公根別廟를 들 수 있다.

祠堂에는 4조의 神主만을 봉안하기 때문에 부묘를 하게되면 高祖考妣의 신주를 옮겨 봉안하고 祖考妣와 考妣의 신주를 차례로 옮겨 봉안한다. 사당에서 들어낸 高祖高妣의 신주는 아직 4대의 대수가 다하지 않은 長房孫의 집으로 봉안하거나 묘소에 埋安한다.

草溪鄭氏는 대대로 3대 제사에 그치는 고로 1653년 19세 錫文이 별세하자 宗榮의 祀板을 18세 山逸公 基成의 집으로 옮겼는데 재차 1662년 基成이 喪을 당하자 이후 諸宗이 承旨公 基豐의 집에 모여 祖(宗榮)妣 遷葬과 祀板을 宗家로 還奉할 것을 결정하였다. 비록 3대 奉祀로 끝났지만 院享 儒賢이자 名祖인 宗榮의 祧遷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 가문에서 兩代 不祧(允謙 不祧)는 예법에 어긋남으로 잠정적이거나 4대 奉祀로 연장할 것을 결의하였다.

여러 논의 끝에 ‘清白吏不祧’로서 의논을 모으고 10월 10일에 原州 土洞에서 草溪君과 八溪君의 祀板을 가져왔다. 이때 宗孫들이 出迎하여 大峴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 草溪君 祀板은 承旨덕에 奉安하고 宗榮의 祀板은 宗家로 還奉하였다. 재차 承旨公의 慶州 任地에 奉安하였는데 이는 先世家法에 비록 支子孫이라도 재상인 경우 任所에서 家廟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12월 18일에 주제자를 교체하였고 이후 제사는 4대로 정하여졌다.²⁹⁾

이어 20世 洙明의 별세 이후 오랜 동안 恒齋公別廟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1729년(英祖 5) 碧玉亭 黔川公 建柱집에서 會集하여 永世奉祀를 위한 別廟건축을 결의하고 장소는 三然堂(淸城君 煥 故居)의 舊基로 정하였다. 4월 11일에 開基하여 5월 11일에 上樑하고, 그 해 7월 11일에 준공하여 같은 해 11월 7일에 位板을 봉안하였다.³⁰⁾

29) 「壬申日記」俞正公(洙明)

30) 齋室은 8월 1일에 시작하여 11일에 상량하고 1730년 3월 15일에 蓋瓦하였다. 동년 11월 7일에 祀版을 봉안하고 享祀는 음력 3월 10일과 9월 10일에 墓祭는 10월 1일로 정하였다. 당시 營建有司는 鳳柱·熙慶이고 錢穀과 木材를 모으고 賦役을 통해 완성했는데 立木處分 등 경비만 600兩에 달했다(鄭元善著, 「世蹟」上).

이처럼 別廟의 건립은 顯祖宣揚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이었고 차후 草溪 鄭氏 문중의 내적 결합은 물론 公根 일대 마을을 장악하는 주요한 장치가 되었다.³¹⁾

(2) 祭儀의 집행

유교 의례에 있어서 가족 내지 친족의식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의례는 제사이다. 가례의 제례에는 四時祭, 忌日祭, 墓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16세기 조선에서는 四時祭, 忌日祭 외에도 俗節祭(節日祭), 生諱日祭 등이 더 있어, 고려적·불교적 祖先意識에 유교적 祖先意識이 혼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四時祭는 보통 時祭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사계절의 가운데 달(음력 2,5,8,11월)에 高祖이하의 조상을 함께 제사하던 합동제사의 하나이다. 시제는 조상을 모신 사당에서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당이 협소할 경우에는 正寢의 대청에서도 할 수 있었다. 기일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제사이며 모든 제사에 우선하여 제수도 가장 풍성히 차리게 된다. 기제사에는 다른 제사와 달리 돌아가신 당사자만을 제사하는 것이었으므로 신주나 지방도 당사자의 것만 모시고 제수도 單設로 하여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사 당사자와 배우자를 合設하여 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³²⁾ 이는 草溪鄭氏家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墓祭의 경우 『家禮』에서는 매년 3월 상순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체로 10월에 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매년 4節日(淸明, 寒食, 端午, 秋夕)에 묘소를 찾아가 제사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시제보다 더 중요한 제사가 되기도 했다. 墓祭는 음력 10월에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 옷대의 조상, 즉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일년에 한 차례 지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墓祭는 그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시제에 참여하는 범위는 직계자손, 방계자손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제사를 지내는 主祭者 및 參祭者는 속절제, 時祀는 子, 孫 등이 참여하고, 忌日祭인 경우에는 獨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國忌에는 다만 齋素를 하였다. 草溪鄭氏 가문에서 거행했던 제사의 내용은 <표10>과 같다.

31) 후대에 해당되지만 宗家 내에 세워진 孝旌門의 건립을 주목하게 된다. 草堂의 宗家에는 允謙의 不祧廟와 정면 大門 앞에 27세 顯九의 孝旌門이 설치되어 있다. 1891년 10월의 「禮曹立案」에 따르면 강원도 進士 金樂容 등이 故 學生 鄭顯九의 효행에 대해 旌閭之典을 베풀 것을 요구하는 소를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한 判下 사항은 旌閭를 세울 때 材木과 匠手를 예에 따라 관에서 거행하고 그 집안의 煙戶와 還上 등 제반 잡역은 일체 감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光緒十七年 十月 日 禮曹立案」에는 「父母가 發病하자 인분을 먹이고 斷指하여 피를 먹이며 喪葬이 끝난 후에도 묘소에 가서 朝夕으로 문안과 哭하기를 3年을 하루처럼 행하였다」는 지극한 효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었다.

32) 이영춘, 「喪禮와 祭禮」 『조선시대생활사』, (1996, 역사비평사), 60면

<표10> 草溪鄭氏 宗家祭祀

祭享대상	일시(음력)	묘지소재지	후祀내용
11세 便(配 開成王氏)	10월1일	여주 강천	墓祭
12세 興(配 酒泉趙氏)	10월8일	원주 본재	묘제
13세 溫(配 원주원씨 配 밀양박씨)	10월11일	원주 격동	묘제
14세 允謙(配 원주원씨)	10월11일	원주 격동	묘제
	6월12일	횡성 草堂宗家	不遷之位 忌祭
15세 淑(配 경주김씨)	10월8일	원주 본재	묘제
16세 宗榮(配 성주이씨)	10월5일	횡성 공근	묘제
配 문화유씨)	10월5일	파주 도감	묘제
	3월10일	횡성공근 別廟	春享
17세 煥(配 남양홍씨)	10월12일	원주 광격	묘제
配 동래정씨	10월10일	원주 만종	묘제
18세 基廣(配 횡성조씨, 配 전주유씨)	10월12일	원주 광격	묘제
19세 錫文(配 밀양박씨)	10월11일	원주 격동	묘제
20세 洙明(配 함평이씨)	10월5일	횡성 공근	묘제

이 가운데 草溪鄭氏 문중은 干川 奉禮公 墓祭가 오랜 동안 행하지 않아 1727년 夔熙가 宗中에 發文하여 4과 宗孫이 隨年輪行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坡州郡 月籠面 都內里 所在 文化柳氏墓에는 원래 墓田이 없이 淸城君 和會時 墓奴만을 두어 그들의 身貢으로 祭儒에 보태도록 하였다가 21世 八柱가 비로소 冢 11斗落, 田 1日耕을 구입하여 墓奴 夢男에게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墓位를 마련하여 예의를 갖추었던 사례가 보인다.³³⁾

草溪鄭氏 가문은 물론 전통가정의 아동들은, 한 가문의 구성원이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처신하고자 당시의 시대문화에 따른 교양을 갖추어야 했다. 당시 행해진 아동의 교양교육 중에는 시문 짓기나 春帖字 쓰기, 친족간의 혈연관계를 파악하는 家系史 익히기와 寸數 계산법, 그리고 생활 예절인 인사 및 언어 사용법, 실생활 기능인 셈하기와 생활 禁忌 등이 있었다. 이는 草溪鄭氏家の 家藏 圖書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1년 수 차례 반복되는 각 문중의 의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의 제도적 의미를 구현하고 하고 나아가서 그 행동의 총화로 이루어지는 삶의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적 장치를 가리킨다. 이러한 祭儀를 통해 鄭宗榮이 늘 자제에게 경계하여 말했던 “나는 일찍이 내 자신의 편안함을 얻으려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본뜬다면 모든 일에 허물이 적으리라”는 훈계와 ‘詩文을 금지’하고 ‘故鄉을 지키라’는 유언이 회자되게 되었던 것이다.³⁴⁾

33) 鄭元善, 「世蹟」 下

철이 든 자녀의 경우 가문단위의 의례나 지역단위의 의례에 참여하여 그 의례의 의미, 즉 의례행동의 제도적 의미 또는 의례행동의 기저에 들어 있는 논리적 가정과 논리적 귀결을 이해하려 하였다.

(2) 別廟 享祀의 전개과정

1730년 11월 7일 문중의 오랜 논의 끝에 준공된 別廟의 奉安日에 玄孫 洙諱, 5대손 前縣監 建柱, 6대손 前縣監 熙普, 前佐郎 熙揆, 進士 熙夔 및 外孫 權聖哲, 5대 庶孫 仁柱, 6대 庶孫 熙說, 7대 庶孫 埰 등이 참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³⁵⁾

別廟에서는 鄭宗榮의忌日(8월 11일)과 前配 文化 柳氏(2월 5일), 星州 李氏(9월 29일)의 제사가 함께 거행되었다.

3월 10일 거행되는 享祀의 諸執事は 執禮, 贊引, 初獻, 亞獻, 終獻, 添酌, 都陳, 大祝, 陳設, 奉香, 奉爐, 封爵, 尊爵, 司樽, 典祀 등이 있었다. 1732년에 거행된 時享에서 初獻官은 6대 支孫 熙僑, 亞獻官은 6대 지손 熙百, 終獻官은 熙彦이 거행하였다.³⁶⁾

「內外子孫瞻拜記」(自庚戌 正月記)에는 別廟의 건립 후 70여 년이 지난 후 별도의 범례를 세워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祭享의 내용 중 禮制는 鄉賢祠를 따르되 신중, 근엄할 것을 규정하였다. 특히 廟位 田畚과 奴婢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繁冗費를 줄여서 永久 遵奉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一. 春秋享祀는 田畚所出로 借備하되 分錢粒米하여 出賃하지 말 것.
- 一. 享用的 剩餘分은 당해 有司와 庫直이 取殖할 것.
- 一. 祭享후 所入과 所餘分에 관한 문서 2건을 작성하여 1건은 別廟에 두고 다른 1건은 宗家에 납부할 것.
- 一. 別廟 錢財에 대해서 有司와 여러 지손은 물론하고 조금이라도 犯用하고서 납부하지 않으면 당사자를 笞罰하고 집안을 수색하여 田畚·牛馬 등을 압수할 것.
- 一. 入齋후 흡연을 금할 것.
- 一. 南草비용을 지불하지 말 것.
- 一. 지손 중 大小科에 입격한 자의 경우 前例에 의거하여 접대하고 그 비용을 祭享條에 혼입시킬 것.

34) '每誠子弟曰吾未嘗求便於已而胎害於人若曹體此心庶乎寡過矣'(右贊成鄭公神道碑銘并序,李端夏 撰)

35) 「祇謁錄」

36) 이 밖에 참작관은 熙夔, 대축은 6대 지손 熙大, 7대지손 璽, 4대 庶孫 洙明·洙希, 5대 庶孫 仁柱, 6대 서손 熙說, 外6대손 韓世烈, 成鎮夏가 맡아 거행하였다(「八溪君別廟祭享笏記」 「祇謁錄」).

다음으로 別廟 운영에 대한 祭員들의 행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一. 祭器의 私用을 금할 것.
- 一. 廟事에 노비를 배제시키고 各家에서도 사사로이 使役시키지 말 것.
- 一. 田畠은 常漢외 경작을 허용하지 말 것.
- 一. 廟底 廊舍에는 양반의 거주를 불허할 것.
- 一. 廟所내 松楸의 刈斫을 금할 것.
- 一. 祭員의 供接을 허용하지 말 것.
- 一. 당해 有司가 대단한 事故 외에 祭享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준엄히 처벌할 것.
- 一. 子孫 중 묘소에서 패악 무례하게 행동하는 자는 영구히 摺斥할 것.
- 一. 廟宇 및 齋室 牆垣의 훼손 부분은 당해 有司가 보는 대로 수리할 것.
- 一. 享祀시 執事가 임의로 奉行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 一. 享祀시 祭員이 소란을 피우거나 실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別廟는 몇 차례의 重修를 거듭한다. 重修의 전과정 즉 논의와 재원의 마련, 관리까지 關東派 전 문중의 관심 속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그 단합력을 과시하는 사안이 되었다. 그 중의 한 사례인 1836년의 政堂重修내역은 다음과 같다.³⁷⁾

日程은 3월 16일에 시작하여 5월 29일에 마친 후 30일 還安한 것으로 나타난다. 別廟의 건축이 오래되어 政堂은 서까래와 기와 및 벽이 파손되었고 비가 새는 문제가 있었다.³⁸⁾

1835년 秋享시 工計費를 계산한 결과 3百兩으로 추산되었다. 庭試(赴舉)로 서울에 올라 갈 때 安洞에서 宗會를 개최하여 개수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비용은 慈山衙中(時任 族淑 鴻慶) 및 지평·원주·횡성·강릉·양양 등 각처에 연락하여 別廟에 送金하기로 결정하였다. 同任에는 鴻喆을 임명하고, 副任 鴻績이 始終을 監董하기로 했다.

各錢排定記에 의하면 京有司 105兩(鴻慶 100兩 포함), 原州有司 16兩, 砥平有司 4兩, 橫城有司 16兩, 襄陽有司 32兩, 江陵有司 14兩 등 도합 149兩에 달하였다. 당시 宗家에서는 1兩5錢과 丹青工費를 담당하였다. 당시 木手·冶匠·蓋瓦匠·丹青匠에 대한 임금으로 31兩 8錢이 지급되고 物品 用下條로 41兩 7分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당시 수합된 금액은 32兩에 불과했으며 1835년 位田에서 소출하여 남은 米穀 75斗를 作錢한 결과 35兩 2錢 8分이었다. 이에 따라 40兩 8錢 7分이 부족하였고 이를 위해 蒼峰의 姜後種·李完金·韓致聞·李德尙, 公根의 韓奴 日分 등에게 각각 매달 5分利로 出債을 하였고 일부 工錢을 미지급한 상태로 공정을 마치게 되었다.

37) 「別廟政堂重修時事蹟」(道光十六年)

38) 「修改之略則 後面之八椽 東西之風板 三面之壁架 蓋瓦之添補 樑上之塗灰也」(「別廟政堂重修時事蹟」,道光十六年)

이후에도 祀宇 및 齋室의 重修는 수차 실시하였고 有司 2人을 두어 陰每月 日과 陰十五일에 오늘날까지 焚香奉審하고 있다.³⁹⁾

5. 맺음말

동족마을의 운영과 관련된 草溪鄭氏 關東派의 활동은 크게 3시기로 대별된다. 우선 고려 멸망 직후 원주에 入鄕한 11세 便 이래 關東派가 형성되고, 14세 允謙과 16세 宗榮을 비롯한 顯祖들이 上京從士를 통해 화려한 官歷을 보여주었던 시기이다. 이들은 벼슬이 끝나면 반드시 고향에 은퇴하여 생활하다가 묘소를 설정하여 원주를 世居地로서 확고하게 삼고 있다.

둘째, 17세기초·중반 橫城 草堂(碧玉亭)의 동족마을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특히 橫城 內公根에 宗榮이 문힘에 따라 본격적인 橫城으로의 移居가 시작되고 燾(17세), 基廣(18세), 錫文(19세), 洙明(20세), 八柱(21세)대에 걸쳐 기반이 탄탄한 동족마을과 門中이 건립되었다. 이들은 관직생활과 橫城 碧玉亭의 생활을 병행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도 굳건한 기반을 형성하였다.

당시 草溪鄭氏가 동족마을에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에는 顯祖인 宗榮과 允謙의 別廟祠宇, 지역 대표書院인 七峰書院에 配享된 사실, 그리고 막대한 경제력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극진한 祭儀 執行을 통해 지역 소재 先親 墓所들에 대한 관리와 문중 구성원들 사이의 결집을 이루어내고 있다. 「喪葬記」와 「祗謁錄」에 나타난 原州·橫城 인근지역의 改葬 관리와 內外孫의 끊임없는 別廟 配享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草溪鄭氏의 경제력은 土地와 奴婢制 운영에서 비롯되었다. 17세 초반 토지의 규모는 畓 657斗落+240負 4束과 田 418斗落+116負 8束에 이르며 18세기에는 2,403斗落이 넘는 토지를 소유·경영하고 있었다. 奴婢 수만 하더라도 率去奴婢·外方奴婢·墓直奴婢를 합쳐 1732년 299

39) 예를 들어 1989년 祀宇를 重修하고 齋室의 경우 舊舍를 철거하고 원형대로 완전 新築하였다. 신축자금(4천5백만원)은 坡州소재 文化柳氏(恒齋公前配)의 묘를 恒齋墓所遷葬에 따른 坡州位土賣却代金으로 충당하였다. 1988년 당시 宗議로 매각한 소속 位土는 坡州郡 月籠面 都內里 224番地 畓189坪, 542번지 畓 1,671坪, 산 29번지 임야 5町8反, 산 35번지 임야 5町19反이었다. 한편 恒齋公 影幀奉安은 1988년 11월 13일에 시행한 것이었다. 또한 別廟의 位土는 16,450坪이고 林野 84町 9反인데 약간 감소하였다.

別廟는 影幀을 봉안하고 있는 사당과 재실의 기능을 하면서 墓城 및 사당관리를 위한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당은 부속건물 뒷편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신도비가 세워져 있고 신도비 앞을 지나 산 쪽으로 나 있는 소로를 따라 300여 미터 가면 오른쪽 작은 능선에 鄭宗榮의 묘를 비롯하여 鄭洙明·鄭錫衍 묘가 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口, 1759년 236口에 이를 정도였다.

셋째 시기인 18세기 이후 19세기에 걸쳐 草溪鄭氏는 宗孫들의 중앙 관직으로의 진출이 적었고 거둬들인 分財로 인한 토지 및 노비소유 규모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別廟를 중심으로 한 제사의 운영과 기존 시기부터 활용되어온 宗約(宗規)을 통해 關東派의 전 거주지, 즉 서울·경기·강원일대의 門中員들에 대한 관리와 연망을 계속 맺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마을 내 다른 姓氏에 대해 門中の 위세와 권위를 드러내는 한편 同族간의 결속과 하층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하고 있었다.

草溪鄭氏 關東派는 宗派를 중심으로 하여 小宗들을 결속시키려 하였고 종족의 親疎를 분명히 하여 계통을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16세 宗榮이래 門中の 傳言이기도 한 ‘尊祖敬宗’ ‘親親合族’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17세기 이후 세거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宗法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父系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다른 지역의 同姓 親族과도 유대를 강화하였고, 공동조상의 제사도 정비하였다.

이러한 전통 위에 성립한 草溪鄭氏 關東派는 오늘날에도 ‘先朝遺業의 보호유지 및 추모 사업, 育英사업, 회원상호간의 敦睦繁榮’이라는 목표 하에 ‘弘文獎學會의 운영’, ‘先世 奉審事業’, 始祖 崇拜와 관련된 ‘光德祠와 玉田書院의 건립’, ‘宗史발간’ 등의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